朝鮮日報
夕刊
十三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總選議員이不良하면 第二解散不辭코斷行?

總選擧後의議會對策에關하야 林首相心境所信披瀝

林首相

【東京電話同盟】來總選擧戰은政黨死活의 一戰인데 政民兩黨이 反政府의 共同戰線을펴고 必勝을 期하고잇슴에 對하야 政府는 依然積極的態度로서 選擧에 臨함을 避하고 어데까지던지 政黨의 反省自覺과 公正한選擧와를 期待한다는 程度의 消極的態度를 取하고잇다 따러서 今後半個月間에 新黨樹立의 氣運이 熟成함은 到底히 期待할수업고 野黨만이잇고 與黨이업는 總選擧의 結果는 아마 當局이 政府와 政黨과의 正面衝突이 豫想되는데 그境遇政府가 果然 總辭職할지 或은 第二의 解散으로써 應할지 林首相의 心境에 最大關心을 갓게되엿다 이點에對하야 林首相은 十二日夜 關西旅行의 歸途左와如한 自己의所信을 披瀝하엿다

今回總選擧에서 公正한選擧의結果 選出된公正한 議員이 公正한立場에서 正當하다고 認識하는것과 政府가 正當하다고 認識하는것이 相違하는 境遇에는 政府로서는 勿論 스스로 反省하여볼 必要가 잇스나 그러치안흔 境遇에는 政府가 正當하다고 信하는바에 쪼차 邁進할박게업다 그리고 現下非常時局에對한 認識을 가진者이라면 政府의 所信과 그리相違되는일은 업슬것이라고 思한다

選擧의結果 選出된 新議員이 公正한가 아니한가는 選擧의經過라던지 人物이라던지 그人物의 論議에依하야 判斷할것이오 余一人의 判斷도아니되고 閣僚全體의 意見을 徵하며 또 選擧의經過는 內務省에서 注意하고잇스므로判斷만될것이나 議會에臨하야 그人物의 論議를 들을때에 가장 잘알것이다。

十分間으로마칠質問을空然히길게하는等은明白히會期延長의戰術이다 要컨대 自己로서는政府나 政黨이나 모도單純한私利私見을 떠나서 大同團結하야 國事를議함이 가장肝要하다고思한다

總辭職?再解散?

會期十日間假量으로 特別議會七月召集

短會期사이에通過할수잇는 重要法案만上程乎

【東京電話同盟】新政策六大項目을決定한政府는 今週以後定例閣議를 每週三回式열고 그具體化를協議하게되엿다 十二日夜林首相의歸京을기달리여 十三日에는 政策을決定한後의 最初閣議를열엇는데 總選擧後의 特別議會召集에對하야는 林首相은 七月召集의意向을굿게하고 그會期는 너무길게하지안코 大體十日程度로하게되엿다 卽政府는 이特別議會에는 多數法案을 全部提出함을 避하고 政策의 緊急輕重과 短期間의 會期內에 通過할수잇는 可能性을參酌하야 新政策의 極히 一部를 提出할 方針인데 電力統制案、義務敎育延長案等과가튼 單只十日會期로서 審議完了를 바랄수업는것은 提出치안코 通常議會에 廻付하게되여 結局來特別議會에 提出될것은 過般解散議會에서 審議未了로된 國民健康保險法案 農地法案 軍機保護法案 燃料政策關係法案 現內閣獨自의案이라고되이는 選擧法改正案이考慮케될뿐이다 따러서 其他諸政策은 모도通常議會에 廻付되는셈인데 此等諸案提出에對하야는 그때까지에 企劃廳이 實現할터이며 또同廳에서 充分研究審議하게되엿다

領事裁判權撤廢會議

【몬트룩스十二日發同盟】埃及政府의 招請에基한領事裁判權撤廢會議는 十二日몬트룩스市의 호텔、몬트룩스·파레스에서 關係二十個國政府代表出席下에 開議되엿다 領事裁判制度는 前代의遺物로서 埃及政府가 解消를希望하는것이오 英埃條約成立에依하야 獨立을 達成코저한것인가 今次會議의 參加國은 現在領事裁判權을 享有하는 白耳義、丁抹、佛國、英國、希臘、伊太利、和蘭、諾威、葡萄牙、瑞典、西班牙、米國의十二個國及事實上領事裁判權을享有한 繼承國家葡萄牙 유고슬라비야 匈牙利 蘇聯邦및長期에 亘한同樣의特權을享有하고잇는瑞西國이다

秩父宮兩殿下 사담프톤御着

【퀸·메리號에서十二日同盟特派員發】秩父御名代宮同妃兩殿下의 御召船 퀸·메리號는 豫定대로十二日午前六時 프리마스港에 到着 御同船의光榮에浴한 乘客의大部分은 여기서 下船하엿다 사담프톤港까지 御供奉하여드리고저 十一日倫敦으로부터到着하야 御召船의御着을기달리고 잇든 駐英大使館參事官富井周氏가 乘船하엿다 午前九時頃英國飛行機 두이여 朝日新聞社의 神風號는 雨中 數回에亘하야 御召船上을 低空旋回飛行을 行하고 秩父宮同妃兩殿下의 御着英을 御奉迎하매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惶恐하시게도 日之丸國旗를 揭한산데키에나시사 御手를 흔들어答하시엿다 그리하야 御召船은從泊四時間十二日午後九時(日本時間十三日午前六時)사담프톤에入港하얏다

와그너勞働法은 違憲이아니다!

勞働法에關한訴訟은政府側勝利로 米聯邦大審院判決

【紐育十二日發同盟】米國聯邦大審院은 十二日正午開廷 휴-즈大審院長司宰下에 米國新聞聯合會(AP)提訴에係한와그너-關係法令審議한結果 同法은 憲法違反이아니란 旨의 判決을 내리엇다 右判決의 結果 와그너-勞働法에關하여는 訴訟은 政府側의 勝利로 되엇다 (寫眞은 大審院長 휴-스氏)

蘇聯、不可侵條約을 積極的으론 不提出

『모』鐵道遮斷責任問題에도言及 蘇大使유氏歸任談

【敦賀電話同盟】賜暇歸國中의駐日蘇聯大使유레네프氏는 十三日午前七時敦賀入港의 歐亞聯絡船 사이베리야丸으로歸任同九時二十分敦賀發國際列車로 東上하엿는데 同氏는 船中에서 日蘇間의當面諸問題에 對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自己가歸國中 新任外相이就任되엿스므로 歸任早早佐藤外相을訪問하랴한다 日蘇國交問題에 對하여여러가지로意見을 交換하려한다 國境問題에 對하야는 蘇聯側으로부터 일직이不可侵條約을提示하엿스므로 다시積極的으로提示하지는안홀것이다 但日本側으로부터 무슨말이 잇다면自己로서도 充分히考慮할 用意가잇다 모로토프鐵道遮斷에關하야는 매우 非難을밧고잇는듯하나 이것은蘇聯만을 責할것은 아니다 그理由는 日本政府當局이잘알고잇슬것이다 또 海豹漁商船의 撤廢問題에 對하야는 自己로서는 잘모르나 日本의權益에 對하야는 蘇聯도相當히 考慮하고 잇다 日蘇間의 通商關係의 今後에對하여는 相當히 悲觀說이傳하고잇스나 이것은 北鐵買收物資라는 中間的貿易形態時代의 뒤를바든것이니 不得已한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나今後어떠케 發展할가하는것은 豫想할수업스나 特히 最近되엿다고 全然貿易이 업게될것이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近近코시에로프通商代表가 賜暇歸國하야 再次 歸任하는날에는 무슨當面打開策이 잇게될것이다(寫眞은 유레네프蘇大使)

日印通商協定 假調印을終了

同時、콤뮤니케發表

【뉴·델리十二日發同盟】日本代表 米澤總領事는 十二日 午後四時 다우商務次官을 官邸에訪問 日印通商協定의 假調印을終了하엿다 細目의內容은 十四日前後 뉴데리、東京、倫敦의三個所에서 同時에 發表하게되엿는데 印度政廳은 假調印終了와同時에 左의 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日印兩國代表는 十二日午後日印通商協定에 關한 最後的會見을 遂하엿는데 그席上에서 印度代表 다우商務次官은 日印兩國間에 到達한 協定을諒承하는旨를 述하고 이에對하야 카르갓타駐箚 米澤總領事는 다우商務次官과 同意見인旨를 言明하엿다

다음 다우商務次官은 米澤總領事에對하야 卽時日印通商新協定에 假調印을 行할意向이잇느냐고 質하매 이에對하야 米澤總領事는 新協定書二通을 作成한後 調印하자고答하얏는데 假調印式은 商務次官官邸에서 執行되엿다

冀察外交部改組

【北平十二日發同盟】冀察外交委員會는 前主席陝中孚氏罷免以來 內亂的事情에依하야 後任主席에冀宗濂氏가 新任되지못하고機能이 全然停止狀態에잇는바 對外重要機關으로서 放置할수업서 政務委員長 宋哲元氏는 日本關係에 孫潤宇氏 歐米關係에 熊少豪氏를選定하야 그實務에 當케하여 兩三日中에 正式으로 就任케되엿다 이와同時에 一、二內部에人事刷新이行하게되여 陝中孚氏系로서 專히 日本關係의 衝에當하고잇든 林耕宇氏를 비롯하야 數氏는 罷免되엿다 그리고 後任主席問題解決까지 孫潤宇熊少豪兩委員이 外交事務를 合議處理하게되엿다

四頁不再錄號外發行

十三日正午 白白敎事件發表解禁으로 本社에서는 四頁不再錄號外를 發行하엿습니다

朝鮮日報社

叛軍巡洋艦 英艦을抑留

【비이유十二日發同盟】巡洋艦 아르미랑 셀베라號는 十二日夜 西班牙領海內에서 英國商船一隻을 臨檢抑留한後 빌는港及로스·비사토스方面에 進行하엿다한다

各黨派別立候補

十三日午後一時三十分現在 各黨派別立候補者數는 左와如하다

民政	二四五
政友	二六一
昭和	三七
社大	六一
國同	一九
東方	一九
諸派	四一
中立	九七
合計	七八〇
本日屆出	二三
立候補辭退	一一
死亡	

道議員立候補者 百三十三名(十一日現在計)

朝鮮人百廿八名日本內地人五名 定員은二百八十三名

五月十日에 一齊히 施行될 各地道會議員選擧에 對한 選擧告示가十日各道에서 發表되엿는데 十一日現在로 立候補者數를보면 定員二百八十三名에 對하여 日本內地人五名 朝鮮人 百二十八名 計 百三十三名이다 立候補屆出은 選擧七日前까지이므로그前에 屆出하면 되는 것이다 數日中이면 候補者도 大體로알수잇슬모양이다

定例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十三日午前十時부터 總督 總監列席으로正午까지열리엇섯는데 會議內容은다음과갓다

▲增永法務局長은 小鹿島更生園視察談을하고 ▲矢島農林局長은 林業開發會社의 豫算과資金關係의 說明이잇고 朝鮮林檎(苹果)의 移出品檢查를할까햇스나 朝鮮產品에는「心喰虫」이업다는것이 判明되여 移出檢查制를實施치안키로하엿다는報告가잇고 ▲相川外事課長 滿洲國總理大臣이 京城에 오게됨에對한 打合報告가잇고 ▲大竹內務局長은 十日江原道海岸의暴風被害에對하여 死者十六名 行方不明六十二名 漁船沈沒十三隻이잇는것과 또道會議員選擧는 五月十日施行케되는다는報告 ▲三橋警務局長은 警務事務에 對한 報告가잇슨다음 ▲山田遞信局長 簡易生命保險의加入者가激增하야 百萬件이一億八千六百萬圓에達하엿고 申請은 保險金額을 倍로 施行한結果 比較的數가減하여 一萬二千件에達하엿다고 報告하엿다 ▲棟居專賣局長은 十一年度의 專賣收入은 五千七百九十萬圓으로 豫算보다 四百二十萬四千圓의 增收요 前年度보다는 五百七十一萬七千圓의 增收이엇는데 그中煙草는 四千八百四十六萬一千圓으로 豫算보다 四百九十萬八千圓、阿片은 百七十萬一千圓等으로되엿다 ▲鹽原學務局長、博物館建設委員會는 今月中에 開催케되엿다는 報告가잇고 끄트로 大野政務總監은 議會關係에對하여 朝鮮關係는 豫算과 法律案은 關稅改正에 關한것外에는 全部通過한것은 同慶할바이다 議員의 朝鮮에對한認識을 더하게하기爲하여 豫算總會의委員會에서 說明을詳細히하도록하엿섯는데 質問에는 朝鮮의産業經濟에對하여 好意的인것이만헛다 今後産業經濟에 더욱 連絡調節이 重要한것이다라고하엿고 또大阪、下關等地朝鮮關係事業視察談이 잇섯다。

既成二大政黨 小會派爆擊開始

【東京電話同盟】政戰第二期에入하야 十二日現在 立候補總數는 七百六十六名(午前十一時集計)에 達하야 全國의選擧戰은 猛烈化하는同時에 本格的砲火가 各地에서交하게될 形勢에이르럿다 卽解散直後 民政보다 陣容整備가 늣게된 政友會는 그後着着陣容整備에 努力한結果 立候補者數二百五十七名으로되여 民政黨의 二百三十七名을 超過하기二十名이나 되엿스며 昨年總選擧의 敗戰을 一擧에 雪辱코저하고잇다 同黨에서는 總選擧後 林非立憲內閣의 退陣은 自明이라하고 總選擧를 通하야 政府의 新黨計劃과 相應하는 小會派及中立各派를 積極的으로壓殺코저 氣勢를올리고잇으나 一方民政黨도 選擧目標를 漸次小會派及中立에 移行하고잇스므로偶然하게도 今回選擧는 旣成兩黨、政府對政黨、信任對不信任이란 從來의 選擧의目標를 떠나서 小會派對旣成兩二大政黨이란 問題도되지안는 勝負를하게되여小會派와通한 林內閣의 新黨樹立計劃을 痛烈히論難批評하게되엿다 이사이에 介在하야 社大가 獨自的存在理由로부터 어데까지伸張하게될지 가장興味잇는點이다

人事·集會

▲李容卨氏(세부란스醫學專門學校敎授)十五日午後四時十五分發列車로歐米醫學界視察登程
▲尹日善氏(同上)同上
▲綸東淑氏(세부란스醫專產婦人科醫師)同上

八面鋒

◇ 京城에本部를두고、近畿山中을 中心으로 百餘敎徒를 暗殺한 白白敎事件。
◇ 犯罪의方法으로보아 被害의程度로보아 實로 犯罪史上에 稀貴한일。
◇ 첫재는 迷信의罪、둘재는 朝鮮의羞恥、셋재는 警察의失手。
◇ 迷信의罪를 업시함에는 迷信의根源을 撲滅할것。
◇ 朝鮮의羞恥를 씻기爲하야는 民衆自身이 迷信에서 깨어나기에 힘써야할일。
◇ 警察의失手를 除去하기爲하야서도 平常時부터 罪의溫床을一掃함이 上策。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京城支店
本店 東京 日本勸業銀行構內
新債券 第十三·十四回 割引勸業債券
◎額面……二十圓券
◎割增金……一等三千圓 以下モ多數
◎抽籤……六月、十二月

回別	仲値
割一	[illegible]
割二	[illegible]
割三	[illegible]
割四	[illegible]
割五	[illegible]
割六	[illegible]
割七	[illegible]
割八	[illegible]
割九	[illegible]
割十	[illegible]
割十一	[illegible]
割十二	[illegible]
割十三	[illegible]
割十四	[illegible]
割十五	[illegible]
割十六	[illegible]
六八	[illegible]
六九	[illegible]
七〇	[illegible]
七一	[illegible]
七二	[illegible]
七三	[illegible]
七四	[illegible]
七五	[illegible]
七六	[illegible]
七七	[illegible]
七八	[illegible]
八〇	[illegible]
八一	[illegible]
八二	[illegible]
九一	[illegible]
復一	[illegible]
復二	[illegible]
復三	[illegible]
復四	[illegible]
復八	[illegible]
復九	[illegible]
復十	[illegible]
復十一	[illegible]
復十二	[illegible]
復十五	[illegible]
復十六	[illegible]
復十七	[illegible]
復十八	[illegible]
復十九	[illegible]
復十	[illegible]
公債モ高價買入	

▲印來月抽籤。當籤番號表一部二錢。一個年間二十錢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十八番地 振替京城二九七 電話本局四〇五四

好職業
엇고、景氣모르고、失敗不、버리가크다 本業副業으로男女小兒 遠近不問、自宅에서 全國에서할수잇는일 年中無休、藥書는 込者에無代進呈 本無天王寺區 大阪天王寺區 福榮商會

大光式ヒカリ號 本社特製製繩機
쟁기급보습
大光式ヒカリ號製繩機 大光式ヒカリ號俵扱機 大光式ヒカリ號旋風機 製造元
日本鎌ヨシベル·ホーク 其他農具一般製作及卸商
京城府義州通二丁目太田ビル內
大光農機具製作所
電話本局六四七番 振替口座京城九〇五番
今印峰犁先鮮滿總販賣元
峰元製보습은久耐力他品의三倍各種쟁기에通用
特許逆轉自働防止 經快無比美音繩

朝報案內

音樂 四月號廿錢也 振替京城三一五五番 洲留學生에對하야 音樂會許諾 特別 伊太利民謠산타루치아原曲 京城壽松町三六 音樂社

支所長招聘
左記各地에支所開設코저支所長되실분을招聘함 晉州、襄州、淸州、公州、順天、原州、春川、開城、江陵、水原、鐵原、安州、定州、城津、間島、 希望者는履歷書를提出하시오 京城黃金町二丁目 明治生命京城支店

募集
內務、外務社員採用(特히地方에精通한분) 京城南大門通一ノ三 大同製藥社

讓渡
化粧品、粉末石鹼製造機具最新式、原料、容器、包裝材料 價格不拘 至急處分하오니有意之士는直接本所에來談하시오 市內花洞町一一六 朝鮮化粧品研究所

山갈지
昨秋南鮮絕島의山中에서捕獲한乾獺一尾願買人은 市內唐珠町五三崔泰建의게로

社員採用
甲種商業卒業程度의社員을採用하겟사오니四月二十日以內로自筆履歷書携帶來談하시오 京城府瑞麟町一三三番地 朝鮮企業株式會社

優良國產靴크림
出現大阪浪速元町難波靴製作所에서製造하난「무데靴크림」은 各地에大好評이며目下宣傳大賣中이며 靴店에限하야見本을無代進呈이라하니希望者는速히申込하시요 또朝鮮總代理店은 京城黃金町渡邊商店이라더라

東亞無線技術研究所
研究生補欠募集 ○募集人員四〇名 ○設備完全 ○締切五月十日 ○就職確實 (規則書要三錢切手)
京城府惠化町一三五番地 電話光二〇五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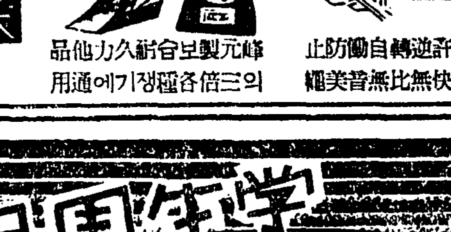
開院
李內科醫院
醫學博士 李甲秀
京城府壽松町四六 (鍾路小學校後側) 電光二六六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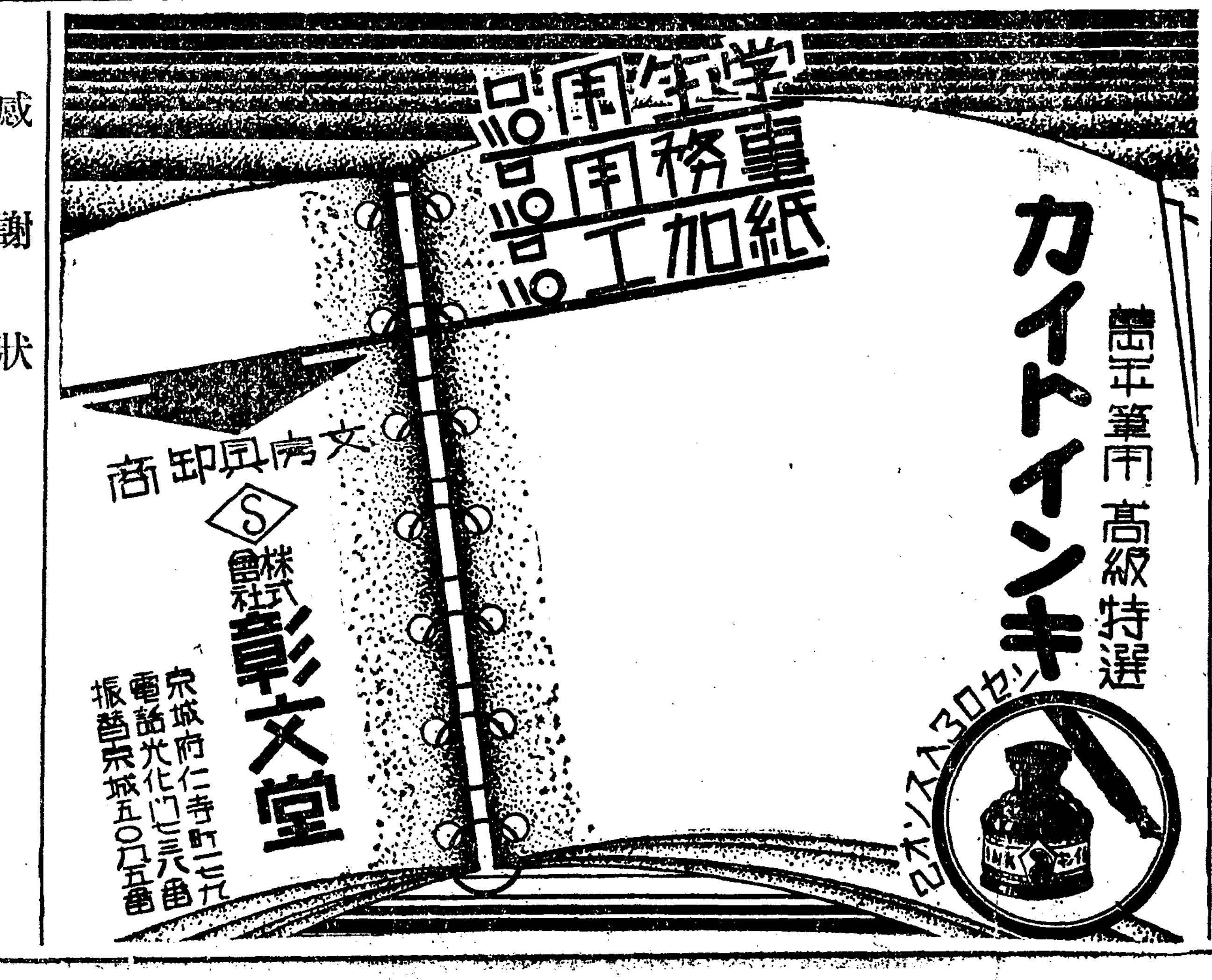
感謝狀
拜啓、貴社日益隆昌하심을慶賀하오며 陳者父親玄今石公貴社養老保險에加入하야 겨우第二回保險料를支拂하신後死亡하신바 保險料金一千圓也를即時支拂하야주시와 貴社의迅速確實함에 感謝不堪하옵기 玆에紙上으로써 謝意를謹表하나이다
咸北明川郡下加面南山洞 被保險者 玄今石 保險金受取人 玄時年
日華生命保險株式會社長 花臺代理店 主管許勳哲 貴下

京城金弘琯內科醫院
內科チストマ十二指腸虫재독科專門 總督府認可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

果樹苗木
定價表大進呈 平壤府船橋里四七 山口農事部 電話四八 振替京城一七五二四番 蘋果苗 水蜜桃苗 洋李苗 其他販賣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高級アイスケーキ機械
其他各種冷凍機特價販賣。豫約開始
代理店 特約店 外交員募集。
秘錄進呈 製造營業秘法傳授
釜山府大廳町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白白魔敎事件

事實取調에大難關
狂信的緘口엔窒塞
證人敎徒百五十餘名은留置
取調段落은尙遼遠

흉폭(兇暴)의극 참학(慘虐)의길 정인「살인결사」(殺人結社) 백백교가 지난이월십륙일밤부터 동대문서고등계의손에 의하야검거에착수된것은 당시본보가 이것을 특보한바이며 그들의소름이끼치는 범죄내용에대하야서는 금일호외를 발행하야 상세히보도한바와갓다

범죄사상 처음보는 대사건의 수사본부인 동대문서에서는 검거에착수하자 곳이것을 경기도경찰부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보고하야 그지휘를바다 이레두달동안이나 예의사건 진상의구명에 필사적활동을 하여온것으로 지난사월말까지에는 교간부는물론 관계자 남자일백오십명과 여자오십명의 검거에성공하야 동서류치장에 남자팔십명을 유치식히고 여자삼십여명은 동서도장에이것을 수용하엿스며 남어지관계자는 부내 종로 본정 서대문 등각서와 경찰부에수용하엿다

이교의조직은 교주의절대전제(絶對專制)아래 종(縱)으로서의 련락만잇슬뿐이요 횡(橫)으로서의 연락은전연업서 교도사이에도 누가교도인것을 알길이 업스며 자기가 교도라는것을 말만 하드라도 교주는 곳이것을 간부들에게 명하야 살해하야버렷고 더욱 교주십복인 간부들은 죽엄으로써 비밀을 엄수하여왓슴으로 처음에는 주뎜한취조에도 도뎌지 입을떼리지안허 자세한 사건내용을 알기어려웟스나 이월십팔일 찬바람이 피부를어이는듯한 오전두시경 이사건의발각단서가된 부내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 구백오십구번지 류인호(柳寅浩)의집을 탈출하야 행경경교주의집으로부터 해당경(孔德町)인 자기집으로도라가는길에 왕십리보통학교압담아래에서 동대문서원에게체포된 이사건의중참모격인 교주십복리경득(李敬得)과 련천군령근면간파리(漣川郡嶺斤面干坡里)에 이사하엿든부차원 역시교주십복 문봉조(文奉朝)의입에서 그들이과거 오륙년을두고 무시무시한'살인결사'의흉행을 계속하여온것이 판명은되엿스나 교주는 임이사엄정업 양평(楊平)산중에서 자살한시체로 발견되엿스며 간부라하드라도 즉접하수한수는 서로비밀에부처왓고 또간부중에서도 되짐어살해된자가 세명이나 잇서 시체를암장한곳이 아즉까지명백히 드러나지안는상태이다

경기도경찰부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는 수사본부인 동대문서를 독려하야 암장한 장소와 피해자수를 엄밀조사중에잇슴으로 판명되는대로 일일히발굴하야 해부한뒤 정식매장을할것이나 그중에는 영원히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원한의평토장(平土葬)도잇슬것이다

詐欺、恐喝、强姦 治維法도違反
─幹部는極刑을豫想─

이외가티 흉악무쌍한 범행을 한교주 전룡해(全龍海)(二)는이미 자기손으로 자기의목숨을 처산하얏슴으로 문제박기어니와 그외의 간부들은 전부 치안유지법위반(治維法違反) 살인(殺人) 협박(脅迫) 강간(强姦) 사기(詐欺)등의 무서운죄명으로 계속취조중이나 사건자체가 상식을초월한 심각한것임으로 전부의취조가 언제나 끗날른지는 지금 예정키어려우나 그들은 모다예심에 회부되여 극형(極刑)으로 처단될것으로 보힌다

종래에도 조선의유사종교(類似宗敎)즉사교(邪敎)에 대하야는원측적으로 엄중히취체하야 왓지만은 이번백백교(白白敎)

間一髮虎口免한
東門署의五十餘名女性
乳兒들을품은채留置場에서
所向無處의蒼氓들

『라스푸친』『카포네』가 한거번에 세상에 다시 나타난듯한 전룡해(全龍海)(二)의 마수에걸려 산간농촌화평향(平和鄕)에서 천진무후하게 자라난천사(天使)가튼 수만흔처녀가 생명가치생각하든 정조를 그의발아래 짓밟피고 가지가지추태의 대상이되엿어지 원한만흔 최후를 그의손에서 마친여성이 그얼마임은 지금이것을 알길이 업스나 동대문서의 손에 사건이 발기되후 구사일생(九死一生)의 호혈(虎穴)을 탈출하야 지금동대문서의 보호를밧고잇는 기구한 운명의 여성만이 오십명에 각가웁수에 달하고잇다 그들중에는 교주의명에의하야 락향(樂鄕)을차저 서울까지와서는 아버지를잃고 남편을여이고 장성한 자식을잃고 악마가튼 그들의 음한(淫恨)의채시죽에 죽엄만흔기다리든 여성도잇스며 한거름이떼서 화란을간신히면한 행운녀도잇는것이다

더욱보는사람의 가슴을조리게 하는 정경은 아버지의운명이어찌된줄도 모르고 언니의신세가 망처진것도 모르며 어머니와할께 도라갈곳업는집 먹을것업는 신세에 허무의눈물을 흘리고잇는 간난이와 어머니만이 열창이상에 달하는점이다

邪敎絶滅을期必
◇…三橋 警務局長談

이번 경긔도(京畿道)를 중심으로 검거한 백백교(白白敎)사건은 수사개시이래 관계각도수사당국이 불면불휴로 활동한결과 수범이하 범인전부의 검거를보게된것은 참으로 기뿜을 이길수업는바이다

이번사건은 별항 발표한바와가티 황당무계한말을 꾸며가지고 무지몽매한 산간농민을 기망하야 그결과는 이들이 한층 농민을 리농(離農)식히고 금품을 빼앗고 부녀의 정조를 농락한 나머지에 귀중한 다수의생명까지 마수(魔手)를편 소위류사종교(類似宗敎) 중 그 악질의 가장심한것이다 종래 류사종교의 취체에 관하여서는 현재조선인중의 문회정도에도 민간신앙으로서 사회생활의 정조(情操)의 량식으로되여잇는 관계상 그치안상(治安上)큰 지장이업는것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도(善導)를 가하는동시에 미신을극복하야 치안을 문란케할 우려잇는것에 대해서는 엄중취체를 하여온것인데본건 검거를 기회로 널리 각종류사종교의 정체에 대하야 다시 재검토를하여 그취체에대한 방침을 일층명확히하려고생각한다。

그러나 이종류의 음사사교(淫祠邪敎)의 절멸을 기함에는 근본문제로서 민도의 향상、민중의 각성에 의하지안흘수업다고 생각하므로 일반식자는 이점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당국의 지도취체에 협력키를바라는바이다

斷乎處分方針
警務局 下村保安課長談

이에대하야 총독부경무국하촌보안과장(下村保安課長)은 다음과 가티말한다

白白敎徒檢擧眞相
京畿道警察部發表

今方管下東大門警察署를 搜査本部로하야 檢擧取調를 하고잇는白白敎關係犯罪事件眞相은 다음과갓다。

偶然히 今年二月十六日 京城府下往十里町에서 某宗敎關係問題를 中心으로 部民間에 爭鬪를하고잇는것을 所轄東大門警察署員이 探知하고곳 內探을 하엿든바 意外에도 類似宗敎白白敎에關하야 暴行、脅迫、詐欺等의犯罪가 伏在하여잇는 事實이 判明되엿슴으로 同敎關係幹部一部를 檢擧하는同時에 敎主自稱本籍江原道以下不詳金斗靜(變姓을두려워하야假名)이라는 全龍海(當四十二年)를逮捕코저 그가 숨어잇는 京城府櫻井町一丁目四九番地를 三月十七日早朝에 [illegible]하엿든바 벌서 全龍海는어데로 逃亡한後이엿다 이報告에 接한 京畿道警察部에서는 東大門署를 督勵 銳意敎主의 行方을搜査하는한편 重要한 幹部及敎徒等의 檢擧에 着手하엿는데 首魁全龍海는逃走後巧妙히 警察網을뚤어서 그行方이 判明되지 안헛다 그런데搜査한結果管下 楊平郡 丹月面 杳蘇里에 有力한 敎徒 李三得이 居住하고잇는것을 探知하엿슴으로二月二十一日 同人宅에서 이를檢擧하야 嚴重追窮取調한結果 同人宅으로부터 約八町餘에 떠러진 山中所在同人所有의 山幕에敎主全龍海가 潛伏하여잇섯스나 同日朝에 同所를逃走하야 再次所在를감춘것이 判明되엿슴으로 警察部에서는高等課三輪警部를 部員數名과함께 搜査指揮應援次現場에 急行시키는同時에 東大門、楊平兩警察署를비롯하야 加平署其他道內各警察署가 모두警察力을기우리여首犯全龍海를 逮捕코저 搜査陣을 强化擴大하는 警務局을 通하야 隣接江原道、忠北、黃海、咸南及平南、北道에도 手配한후 緊密한 連絡미테 逮捕에 萬全을 期하엿든바 首犯潛伏場所인 山幕附近一帶는 火田 又는 山岳地帶로서 交通이 極히 不便한데다가 當時 積雪이 기퍼서 零下十度內外의 嚴寒으로 搜査上 非常한 困難을 感하엿다。

一方 搜査本部인 東大門警察署에서는 同署에 檢擧留置한 敎幹部等에 關하야 敎主 全龍海의 行方에 關하야 嚴重取調를 繼行하엿스나 그들은 모두 同敎獨特한 秘密嚴守의 鐵則을死守하야 頑强히 緘口하고 陳述을 하지안하야 搜査上적지안흔 苦心과 困難을 感하엿는데 取調係員은 全力을다하야 糾明에努力한結果三月六日에 敎主全龍海가 潛伏하여잇는 山幕을 脫走하기前에 二十一日未明 李三得方에同居中인敎主寵愛의 妾張子鳳(二)及先妃、海順(모다十五歲)等 女子二名을 敎幹部 李漢宗 李三得의 協力으로 殺害한 다음 山幕中庭土中에 기피구덩을 파고 埋沒逃走한事實이 判明되야 곳京城地方法院檢事局으로부터 池田檢事가 書記및 解剖醫를데리고 現場에急行 京畿道警察部에서는 中村高等課長 野村刑事課長 片岡東大門署長等을急派하야 이를 檢證하엿는데 그 殺害方法及死體埋沒狀況으로 推測하야 그들은 이가튼犯罪를常習的으로 敢行하는嫌疑가 濃厚한바잇고또 東大門署의 取調續行結果敎幹部 文奉朝가 指揮者가되야二月十九日夜半 漣川郡嶺斤面干坡里山속의 文奉朝壓家山幕附近맛테서龍南(十七歲女) 炳劍(十一歲女) 炳甸(八歲男)三名을 殺害同田中에 埋沒한뜻을 供述케되야 檢事局에서는 곳長崎檢事가書記및 解剖醫를 데리고警察部에서는 中村高等課長及片岡東大門署長等이 現場에 急行檢證을하엿다 이로말미암아 그敎의裏面에는 아직도許多한重大事犯이 伏在하여잇는것을 推斷할수잇슴으로 그全貌를 糾明하야 徹底히 剿滅을期할 大方針미테 關係幹部取調를 嚴行하엿는데 果然敎主以下主要敎幹部等이 長年月동안놀낼만한 多數殺人事犯을 敢行한것이 判明되게되엿다

敎主全龍海는 數年前父祖의뜻을이어 自己가 그敎의敎主가되야 布敎하려하엿스나 警察當局의 取締가 嚴重하엿슴으로 公然 此를 標榜하고 布敎치 못하고 敎本部인 自己의 住所도一定치안코 轉轉하야 此를 祕하고 將來 警察當局으로부터 檢擧할 萬一의 境遇를 念慮하야 深謀 또는 巧妙한 計畫에一切의 證據湮滅策을 講하고 所謂 地下에潛하야 密敎로서 側近幹部等의 口授에 依한趣으로 布敎에 努力하여왓다 그리하야 彼等은 無智蒙昧하고 世間事情에 暗昧한者로 資産잇는者 主로 平安道 黃海道等 地方在住者를 物色하야敎主全龍海는神秘的인 力量의所有者로서 凡人과 懸隔이다른 將來반드시天位에登極할 人物은 現在日本의統治下에잇지마는 가까운將來에는白白敎主統率下에 必然獨立하야그때는 各敎徒는 獻誠金의 多寡及其人物器量에 應하야 大臣、參議、知事、郡守、警察部長等의榮職에 任命한다 或은 近近戰亂勃發이 될것으로 資産을 賣却하고 上城하라、敎主는神通力을 有하야必히生命을保證할것이다』乃至는『朝鮮은 近近三十尺以上에 達하는大洪水가잇서 一般民은溺死全滅하더라도獻金한우리敎徒는 金剛山의 避身處에 에難을避하야 生存함을得하고 全龍海 登極하야 天位에就하면 獻金의 額에應하야 榮職에 任할것이다』

또는 『本敎를 信하면 不老長生하야 致富한다』等 荒唐無稽한 言說로 巧妙히 入敎를勸하고 其一旦入敎한者는 土地家屋家財等을 賣却케하야 一應敎主에게 呼出되여 獻誠金의名義로서 巧妙히 所持金을 앗고 或은美貌의 處女가잇는者에게對하야는 侍女로 獻上한다는 美名下에 敎主의 妾으로 提供시킨後 『近近時期가 到來할터이니 그때까지 農村에가서 農耕에 從事待機하라』고 미리 準備하여둔 山間僻地의 交通不便한 一軒家를 指定하야 그곳에 가게하야 火田을 開墾、農耕케하야 겨우 生計를 支持하도록하고 附近 部落民과는 자못 日常 沒交涉하게하야 그動靜을 知悉할者가업는 狀況에잇다 더구나 數年이 못되여도 各地에 轉住를 命하고 甚한것은 妻子各別居의 方法으로 相互그所在조차 判然치못하게하는等 敎徒間의 連絡을 不可能케하야 그 秘密을 防止할等苦肉의 方策을講하고 敎徒로서 萬若背反의 行動을 取하는때에는 勿論敎徒인것을 他에漏洩하더라도 是等은 虐殺과如히 生命을 빼앗기며 或은 一家를鏖殺한다는等脅迫的言辭를 弄한것을 敎徒等은 무서워서 欺瞞되는줄알고 內心 憤慨할지라도 口를緘하고 他에 漏洩치안하며 勿論警察當局에密告하는等도 全然期待할수업는狀態에 잇섯다

그리하야 敎主全龍海는 自己는 恒常身邊에 數名의 美女를 擁하야 妾으로하고 또地方山間在住의 主要한 敎徒等에게 托하야 同居케하는等 其數數十名에 達하엿고、또各地敎徒로부터 苛斂誅求搾取한 財産에依하야 美食을 攝取하고 豪奢한 生活을 營爲하엿는데 그裏面에는 戰慄할만한 大兇惡行爲가 敢行되여잇섯다 卽敎徒中欺瞞된것을 感知하고 脫敎하라하는者가 잇스면 敎主全龍海及 側近幹部等은 此를 背敎分子라 하야 秘密의裡에 防止코자 곳殺害隱葬한것으로 現在까지 屍體를 發見檢證한것만도 旣히四十六人에 達하엿다 그리고 關係者의供述을 綜合하면 그七、八年以前것까지 搜索하는때에는 或은그總數約百餘名에나達하리라고 思料된다 是等被害者는 他道管內者로서 此를殺害하라는때에는山間奧地의 一軒家又는그附近田野의 用件에藉口하고秘密히同伴하야深夜此를 殺害한後地中에 埋沒한것으로 그蹤跡은 巧妙한隱蔽手段을 講하엿고 一方首魁인 敎主全龍海는 隣接江原道搜査隊와 緊密한 連絡미테 管下東大門警察署及 關係各署에서 日夜不眠不休山中大搜索의 結果 지난四月七日 管下楊平郡、丹月面山奧大密林中에서 『나이푸』로 自殺한것이發見되엿다 그리고 主要敎幹部、敎徒等 百餘名은 旣히 關係各道應援下에 殆히 全部를 逮捕하엿슴으로嚴密한取調를 進行하고잇는데近近取調 一段落을따라 犯罪와無關係의 一般敎徒에게 對하야는各其善導轉向을 促하야 眞正한人生生活에 復歸시키고자目下그對策도考究中이다。

斷髮한自稱女學生
大膽한金品詐欺
內資町犯人과酷似한手法

자칭부내 모고등녀학교재학중이란 이십세미만의 묘령여성ㅣ타고난미묘에 『모ㅣ던』풍의단발 그우에 대모테안경까지쓰고 단이며 부내각처유복한가정의 금품을노리고잇는중 십이일에는 부내창신정(昌信町)에사는 경성지방법원서기의집에서 귀금속 현금등 오십여원어치를 빼앗고말앗다

십이일오전아홉시쯤에 부내 창신정 이백이십륙번지에사는 경성지방법원서기 권정주(權正柱)(三)의집에 나히가 열아홉살가량되여 보이는 단발미인이 차저와서 전기 권씨부인에게 자기는현재 부내 모고등녀학교에 재학중으로 얼마전에 귀성(歸省)하엿다가 어제ㅅ밤 상경하는도중에 개성(開城)잇는 당신의친정에 들럿다가 왓노라고하며애교를 떨고잇섯다 이에권씨부인은 친정이야기도 들을겸그를대접하려고 부근식료품상에나간새 전기녀자는 의장속에 들어잇든 순금비녀(時價百圓)한개 백금비녀(時價一百八十圓)한개오십전짜리 비녀한개 금반지 (時價四十圓) 한개결혼반지 (時價二十圓) 한개와 기타현금사십원을 훔처가지고 어대론지 도망하여버렷다한다

약사십분후에 도라온 권씨부인이 이모양을보고 곳 동대문서에 계출하엿는데 동서에서는 시내 각서에 수배를하고 범인을 엄탐중인데 약일주일전에도 부내 내자정(內資町)사는 김씨(金氏)집에서 인상(人相)이 전기와가튼 여자에게 약사십원을 사기당하엿다는데 이것이 만일 창신정사건의 그여자가 틀님업다면 범인의 사진이 경찰에 들어왓스므로 체포는 매우 용이하게되리라고한다

天氣豫報

今夜와 明日은 南東風이불고 흐리며 때때로비가오나、

昨日最高 一四度八
同最低 一〇度一
今朝最低 一〇度三
今日正午 一三度二

雨天延期

全日本빤탐·페더ㅣ級의王者

玄海男 渡米送別拳鬪戰

入場料 링사이드二圓 一般席一圓 學生七十錢(本報讀者優待)

來十六日밤·京城運動場

邪敎를一層嚴調
正體를白日下에暴露
今後警察은이方面에注力

백백교사건은 사건자체가 넘어도 엄청나게 잔인무도하야 세상에미치는충동은 극히막대한터인데 경무당국에서는 이전부터 이러한정체불명한 류사종교단체에대하야 상당히 내사를하여왓고 또그취체에 힘써왓다고는하나 금번사건에 비치워보아 한층엄중한조사와취체의 필요를늣기고 각지경찰로하여금 각별한 주의를하도록 하는터이다 그중 현재경계가 모호하야 세상을어즈럽히하고잇다고 인정되는것으로 약네개의 단체에대하야 방금 철퇴를 내릴준비를하고잇다고한다 그런데 당국의조사에의하면 류사종교의단체라고할것도 오륙년전에는 약사십단체나잇서 그소속인원도 며십만에달하든다수이엿스나 그후세태의 변천과 민도의향상으로 실생활에관계가 업는것으로 인정됨이따라 현재는 불과십수개로되엿고 그세력이란것도 별로문제시될정도는 아니라고볼수도잇스나 그중에는 일정한본부를두지도안코 수시로 자리를옴기며 잡행운동을 하고잇는것도잇서 도저히 안심하고 방치할수업는것이 업지아니하다 그런데도 이번의백백교가튼것은 전혀 표면에나타난것이 아니고 리면에서 그런 범행에까지 미친것이다 또그들이 표방하고잇다는것은 물론신앙(信仰)의 목표가 별반잇는것이 아니고

一、기도에 의하야 병을고치느니 자식을낫케한다느니 하는등을 목표로하며

一、또는 시국담을 억지로끌어부치어 이후군수가 되느니무엇이되느니 하며

一、여러가지 수단으로 금전을 편취하며

一、또는 부녀자의 정조를겁탈하는등

그 수단이 한것은 비열 하야 다소라도 무엇을 알만한사람은 그들의손에 걸려들리 만무하나 대부분 무지몽매한사람들을 상대로 그런악랄한수단을 다하고잇는것이다 이에 경무당국일층엄중한 태도로 이들을취체키로 되엿는데 금후 류사종교중에 정체가 백일하에 폭로될것이 또 잇슬터이다

[illegible] 나릴방침이다 금후상세히조사하야 만일에미신을 미혹케하거나 또는 민중에게추호라도 해독을 끼치는 유사종교단체에 대하야는 가차업시단호한 처분을 나릴터이다 도처에 이따위사교단체가 우야무야중에 숨어잇서 여러가지로 민심을현혹케하며 해독을 끼치는경향이 보이는것도 또한사실인즉 이것은조사하야보아서 단연해산의 처치를 나릴경우도업지안타 그러나 이들 유사종교중에도 민중에 해독이업고 도리혀민심을 안정식히는 단체에대하야는 차라리 선도하야줄방침도 고려중이다 그런데 사교의마수퇴치에대한 근본방침은 일반민도를 향상하며 서로자각하야 이들사교의마수가 세상에 감히머리를들지못하도록 하는데에 막대한힘이 잇슬줄안다 교육보급이 철저하며 민도향상이상당한 정도에이르면 정코 이따위사교마수가 세상에 손을 내밀려해도 내밀도리가 업슬것이다 이만한정도에이르는동안에는 물론경찰의 엄중한탄압이 절대필요함으로 금후로는 거침업시 단호한처분을하라한다

既成宗敎振興
總督府金社會敎育課長談

또 이에대하야 총독부김사회교육과장(金社會敎育課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조선의사교(邪敎) 즉미신을 현혹케하며 세상에 해독을끼치는 류사종교단체는 단연경찰의 힘으로 적극적 탄압을 하야 경우에잇서서는 해산의 철추를 나리는것도 물론 절대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조선기성종교즉 유교(儒敎) 혹은 불교(佛敎) 야소교 (耶蘇敎) 등의 종교기관을 일층 더 충실히하야 일반민중으로하여금 정당한종교에정신적위안을 엇도록하는 동시에 서로자각하야 사교의 마수를 자연퇴치하도록 힘써야할것이다 사회교화기관이 정당하분하고 민심의귀취가 정당하면 이와가튼 마수를세상에빼질도리가업슬것이다

하여간 사교의마수를 퇴치하는데는 경찰의단호한 처분도필요하거니와 사회교화의철저와 민심의 종교적귀의(歸依)가 절대필요할것이다

妙齡美人의 疑問의自殺
어머니일코고독을못참아

십이일밤열한시반쯤에 시내련지정(蓮池町)사십사번지 성이경(成禧璟)씨의큰딸 성기현(成璣賢)(二二)은 양재물을 만히 먹고 자기방에서 괴로워하는것을 그의아버지가 발견하여 곳부근의사를 다려다가 치료에 로력하엿스나 소생치못하고 드듸여그후 얼마안되여서 죽어나고하는데 웨남달리 호화로운집에태여난 꼿과가튼 이팔처녀가 오는봄도 채기다리지못하고 죽엄을 차젓슴가 그가 열한살먹엇슬때 그의어머니는 이태동안고생하든 병환으로 약석의보람도업시 죽엄을 마지하게되자 무남독녀인 그는 보통학교를 마치면서 일상 어머니의 뒷자최만그려오다가 나히하나 둘 더하여감을따라서 더하여가는 고독을 참지못하야 그는일상 문학방면의서적을 탐독(耽讀)하여왓스나 책을보면 볼사록 어머니의추억과 고독은덜하여지지안엇던지 버릇도 피기전에죽엄의길을 재촉한것이라한다(사진은 자살한 성긔현)

廣告

PANTOCRINE
帝國國立[illegible]研究所創製
造血強壯精力特効劑
花鹿茸精血
판토크린
直輸入發賣元
共生藥業株式會社
京城鍾路一丁目七一
電光(2)二五四七番
振替口座京城22002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봄철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慾을增進식히
各デパート及食料品店に あり

옷감 高級絹緞 옷감
韓青商會
京城府桂洞町 電光一三九九番

齒科 口腔病科
趙明鎬
京城寬勳町三五(李剛公邸越便) 電光二〇七八番

雨衣都散賣

여러분의 사랑하는子女들의 우장옷은 다준비되엇습니까 雨期는인로부터올시다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學生男女用各種
紳士用レイコート各種
京城光熙門外新堂町
朝鮮防水布製造所
電話本局一〇二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定價表進呈)

暴君쿈의精力은絶倫

魚族의王이라고할수잇고 깁흔바다속에서 살고잇는 쿈이라고하는고기는 수놈한마리가 一百余匹중二百마리식거느린다는大暴君으로 그精力이絶倫한點에는 어떠한動物이고간에 敢히따르지도못한다。이深海의暴君의睾丸中에서 아리멘트·호르몬、비타민A·D等强力精力素를抽出하야 精製한것을 오오젠리라고 일홈을부처 日本水産理化學研究所에서 發賣하고잇는데、이한알의 營養價(비타민A量)는 實로잉어十五個分乳汁二升에該當하나고한다。또한 本劑를먹으면 健康의決定的要素비타민AD와 强壯호르몬과의活動이 全身에補給되여서精力、腦力이湧出하야 靑年에게지지안는 元氣가난다

新界의權威 石田公平博士가絶讚을하엿고、愛知縣水産試驗場長 [illegible]技師는 老回春의秘藥으로 保證하엿다、그것은 從來의藥物이나 强壯劑는 一時的興奮을일으키는것 [illegible] 直時적어저서 도리혀疲勞하고마는것과는 判然히 相異하야 根本的으로 效力이 뭇처나는때문이다。定價百粒金三圓 三百粒八圓五〇 五百粒(德用)金十三圓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一ノ十一日本水産理研(振替東京八四〇二三番)으로 送金하면 卽時보내준다。送料는內地一錢、內地以外四十二錢

寶城郡寶城面玉岩里

李夢載君
右全羅南道會議員立候補者로서 最適任者임을 認하고推薦함
寶城郡有權者有志

◇[illegible]
時計修理法敎授
敎授所 京城府蓮池町六二ノ一
京城時計修理院

35-のポータブル

第二〇三號(漆黑色)
第二〇四號(茶色)
속속드리細部에이르기까지新裝置를具備한精鋭品이다
コロムビア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德永西大門支店開館

14月日開館

大特價品(一例)

와이샤쓰	1.00	모자	1.20
샤쓰	.50	단장	.35
갓다샤쓰	.90	학생가방	.30
안다샤쓰	.35	부인양산	.35
넥타이	.50	부인양말	.25
사루마다	.15	핸드빽	1.50
쓰봉쓰리	.35	아동복	.40
양말	.12		

謹告
過般來西大門支店을增設하옵기爲하와修理工事中이옵던바諸般의新設備가整頓되와四月一日부터開店披露大廉賣市를開催中이오니倍前愛護하여주심을伏望하옵나이다
京城鍾路 德永商店 謹白

德永西大門支店
京城赤十字病院越便(개명거리)
前和信連鎖店跡

京城鍾路 德永

매독창병엔 푸로다ー가제일이오

경성서대문 신기신성당 에 잇슴니다

육백육호를여러대써도 안되는분은 꼭한번시험하시오

물가폭등 지금안쓰시면 곳 약갑이 멧배나올읍니다

驅黴最新强力劑

매독전멸하는제일힘센신발명약

푸로다ー

PROTAR

매독에대한신발명참해(惨害)

매독은 살이퍽퍽 썩어들어가는 무서운병인줄만 알엇드니 이외에 일년에죽는사람이 수만명인것을 알엇다 그중에도일층더 참혹한것은 뼈(骨)를 갈가먹을뿐더러 이(齒)까지 다갈거먹어 전부빠진다 최근에 모온전수는 하로밤의 작난으로 멧달못되여「이」가ー다ー빠지고 전신(全身)흔들어지 못하게되여어느병원에서든지 치료하기어려웁다는 리유로 입원을거절함으로 최후에치료하다가 죽어도좃타는 부모의승낙서를가지고 왓는대도 거절함으로 야밤중에 자동차를타고 신성당으로와서 애걸복걸하엿섯다 그리하야 하여간 제일강한(十二원)눈을 한제우선 시험하여보라고 하엿더니 차차효력이잇서 지금은 완전한사람이되여 이를 다시해박고 여전히 활동한다 한다 지독한 매독이여 경성신성당에서 요즘새로 신발명한 강력매독약푸로다ー가잇다 십오원짜리한제면 고만이라한다

매독에는 륙백륙호만 마지면곳낫는줄알엇섯다 그런데근래(近來)륙백륙호로매독이완전히 근본적으로완치된다는말도듯고또실지로연구하야보앗다 또 매독환자는그다지만안흔줄알엇섯다 그러나 그생각이전연(全然)근본적으로 잘못알엇다는것이 판명되엿다 즉륙백륙호를 매독에걸려서즉시 게속하야 일수일만에 한번식 십여대나마저야 겨우일시적효력을알게되고 잠간동안잠복시켜 매독을늘려서못성하게 하얏다는것을 알엇다(일수일전에또마질수업는것이다 일수일전에또마지면딴병을알케되고 잘못하면죽는고로일수일에만한번식맛는것이다)다시말하면 결국륙백륙호로는절대로는매독이근본적으로 완치되지안코또십여대나수사를마저야 겨우일시적정지를시킬수잇스나곳또다시재발하는것을 알엇다 그러면륙백륙호를칠십일이상봉일못보고 돈을오、륙십원이상허비하고 주사를마젓짜아모 소용이업고귀중한시간과금전만허비한다는것을 알엇다 그뿐더러 륙백륙호를마지면 몸이약한사람은약일수일동안은일을못하고 알코들어누어서고통을밧는사람이만타 또주사를잘못마저서즉주사가정맥외(靜脈外)로새면살이썩어죽게되는고로 곳팔(腕)을잘러버리고 병신이(不具者)되는사람이만흔것을알엇다 또 그뿐더러 열중에칠팔명(金錢과時間)이 주사를열대(十本)이상十中七、八名은 돈이업서서 맛지못하고병을그대로두어서 살이퍽퍽썩어들가는것을만히 보앗다 그일예(其一例)를 들면하로는 경성시내에잇는한남자가원전신 매독이만창이된 시골머슴을다리고(雇人)왓는데 와서 이병좀고처주시요하고보이는데 그병처(患部)를보고 깜작놀낫다 그병처라는것은 당초에 말할수업는것이다 즉분문(肛門)과낭(囊)사이에 이전(二錢)짜리동전만하게큰구멍(孔)이뻥뚜러저잇섯다 아이저러케몸에 구멍이뚜러지고도사람이어떠케살어왓나하고 차차물어보니서울서머슴사리를하다가 시골서 역시머슴사리를하는데우연히매독에걸려 차차 살이썩어먹어들어가나머슴의신세라약쓸돈도업고 주사마즐 돈도업고하야그대로내버려두엇더니 그러케 구멍이크게뜨러젓고요지음은전신에 종긔부스럼이(梅瘡腫)울룩룩터저 인제는못살것가터서 그전살던서울주인을차저와서 그전살엇든 정의로 사람좀살려주시오하고 애걸을하러온것이 판명되엿다 그리하야 그주인이돈은내가낼터이니 이를상한사람을좀 살려주시요 하고차저왓섯다 그리하

야약을주엇더니 완전한사람이되엿다고편지가왓섯다 또한례를들면 그후에웬남자가한부인을데리고왓는데 얼굴이만창이되여 송진시컴두덕이가리저서 소름이끼치여서 눈으로는볼수업시되엿는대 그부인말이 이병만곳처주면숙어도 그은혜를안잇겟다고 우는소리를하면서하는말이여자가얼굴이이럿케되여 남이붓그러워살수가업스므로주사는물논여러백대를맛고약이라는약은잇는대로쓰고별별치료를다하여보왓스나 종시낫지안하는대엇던사람은암만매독으로치료하여도안나으니 매독이안이고풍이라고하야 풍약도무수히써도안되고하니 신성당매독약푸로다ー는 매독이아니고풍이라도나을순잇는야 고갈을하얏다 신성당매독약푸로다ー는 단순히매독즉창병만낫는것이안이고 보혈ー청혈(補血、清血)피를깨끗하게하는약임으로 서령매독이 안이고풍이라도조흐니한번시험하여보라고 하엿더니멧칠후에그부인이왓는데말숙한미인이되여왓다 아ー참위대하구나약의힘이여 그럿케도무섭게생겨눈으로볼수업는사람이수일간에미인으로 화하는것을보면 그리고 그부인말이 인제는사러낫습니다고 선생님의은덕이야 그야말로태산갓다고합니다 이러한자신하에서그뒤로 차차연구를거듭하여보니무한손병이무섭다 매독가티무서운병이업는것을알엇다 즉임질이나 부인대하증냉병은이자손에게유전(遺傳)은안되는대 매독은자손에게유전할뿐더러칠팔대(七八代)를대대로 전하여가는것을알엇고코가떠러지고 ○도빠지는것을알게되엿다 즉남편이병에니걸면그부인도물론꼭걸니고아이도 피속에그균(菌)을가지고나온다참무서운병이다 그리고매독환자는적은줄알엇더니사실은 [illegible] 비밀에는붓치고말을안하는고로 업는것가트나그ー럿치안타 열중에오륙명은잇다 그런대대개는상약이나수사나 만히하엿서도낫지못하고고통을밧는것을알엇다 또수은(水銀)을피다가죽은사람이만코다른훈을하다가병신된사람이만타 또조약상약(造藥常藥)을쓰다 가피를토하고구감(밥통과창자를버려)이나서 죽게된사람이대부분이다 그럼으로이무서운병을알면서그냥둘수업스므로충분히연구를하엿섯다 그리하엿드니감사장이매일답지하므로자신을 어더이와가티광고를 내게된것이다 천만가지로약을하고 별별치료를다하여도안나어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수저마시고곳시험하시오 틀림업시낫습니다

지금곳안곳치면 대대손손칠팔대까지유전하는무서운병은매독이다

○매독은 당창、또는창병이라고하야 살이퍽퍽썩어들어가는 무서운병이다 코가떠러지고、이빠지는 병인줄은세상사람이다ー아는바이다。그런대 사람치고는누구나다ー병근이잇다는대、병이발하야 심하야저야、치료를하나잘안낫고 나날이썩어드러간다、륙백륙호를맛는분도만흐나、잘안되는 모양이다、그증거는이세상에서 매독이 업서지지 안는것을보드라도잘알수잇다。그런대이「푸로다」는무엇보담답지하는감상이 증명한다。당신의 생명을구하여주시는 구명주(救命主)가왓슴니다。천사가(天使)왓슴니다。이기회를일치마시고꼭잡으시오。일각이급하오니곳치료하시오、수저마시고 다음과가튼 증세의분은쓰시오。여드름이만히나고 종기와헌드가잘나고、코가헐고、남녀간에국부가헐고、가렵고 전신에종기가룩룩히분은쓰시오。눈이희미하고머리가빠지고、팔다리가 쑤시는분은쓰시오。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주문하시면 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약은 환약이오 일주일에효험을봅니다。

◀약 가▶

병이중한데는	십오원
병이원만하면	십원
병이시초면	칠원
병이경하거나 예방으로는	오원

지방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병이좀심하면십오원분이좃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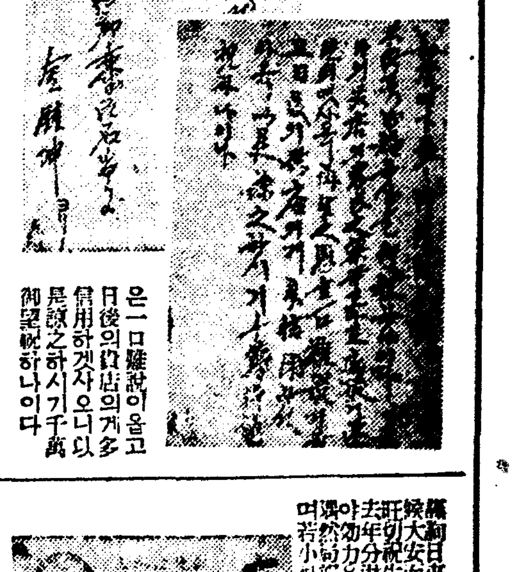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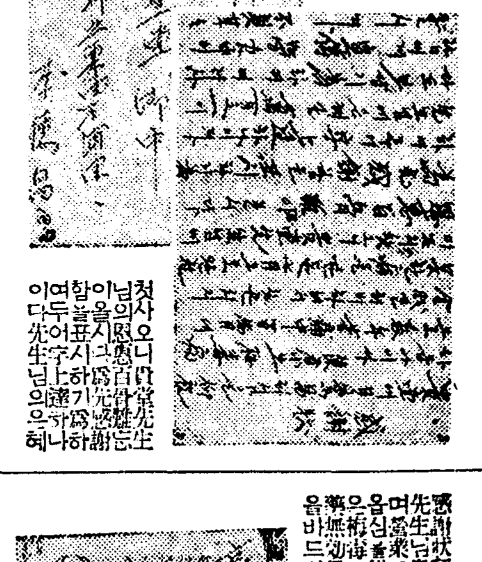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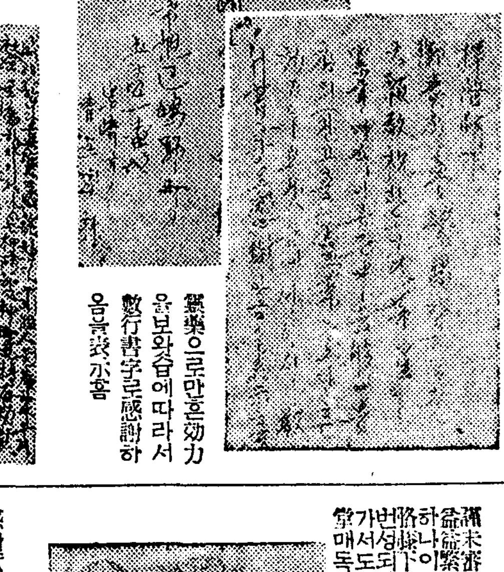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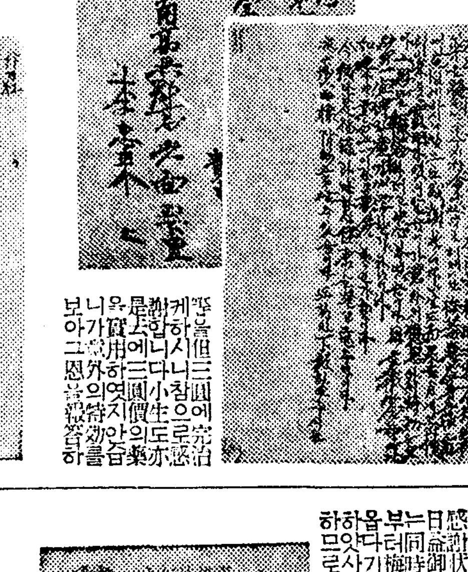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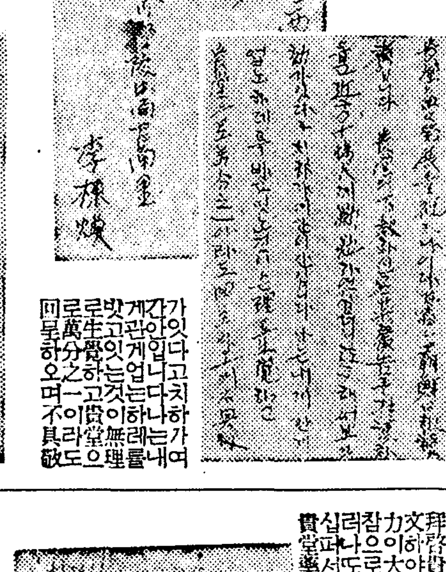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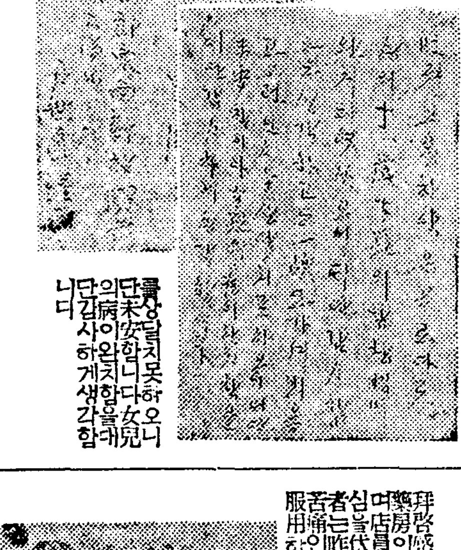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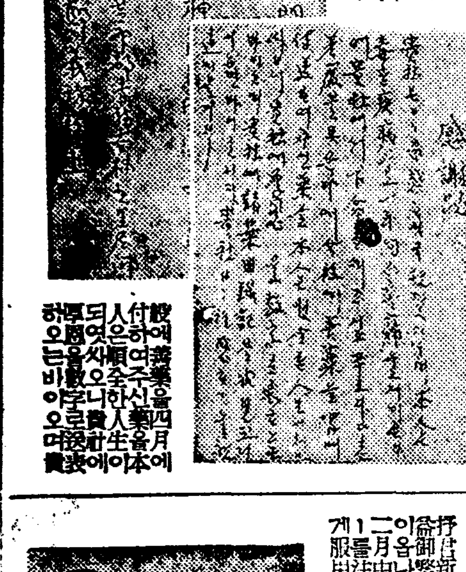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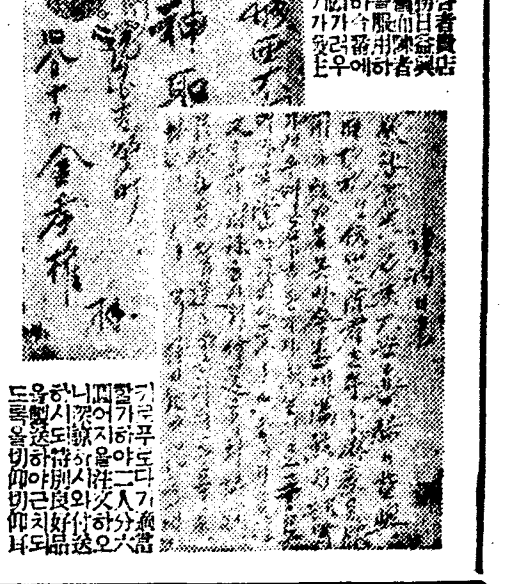
매독전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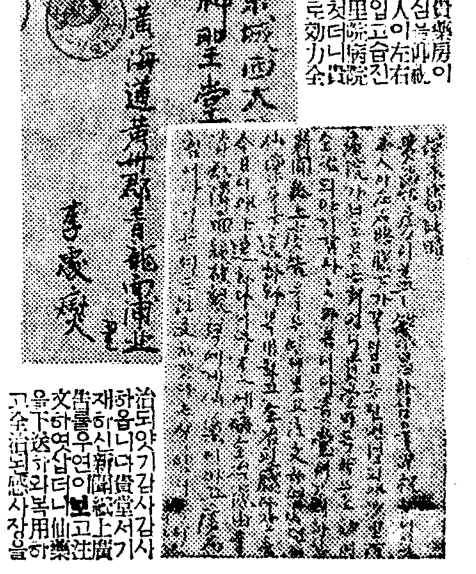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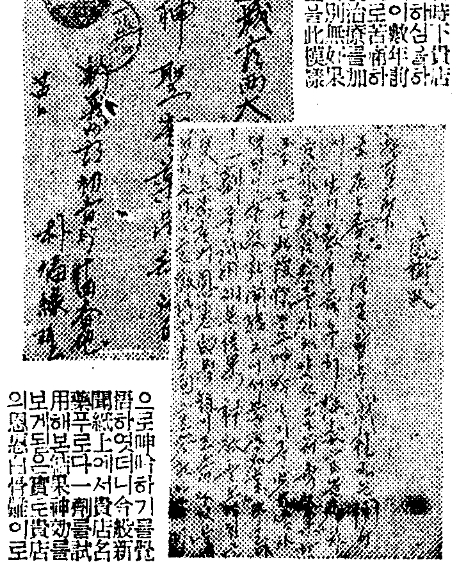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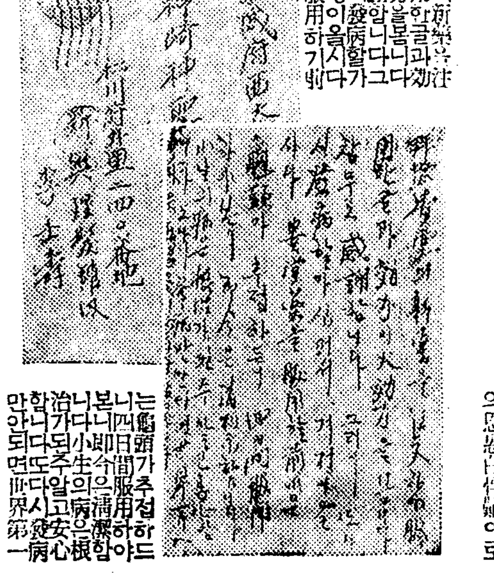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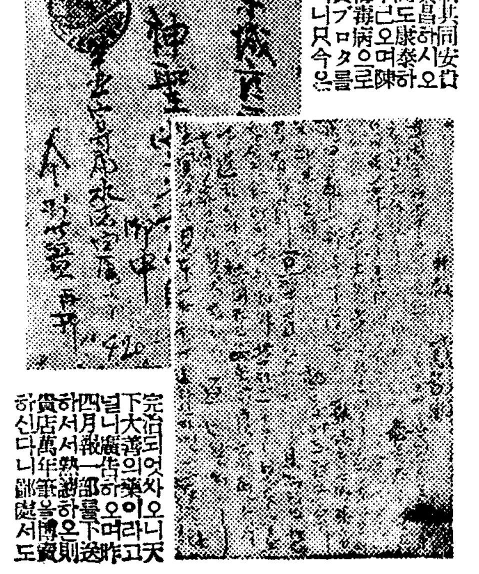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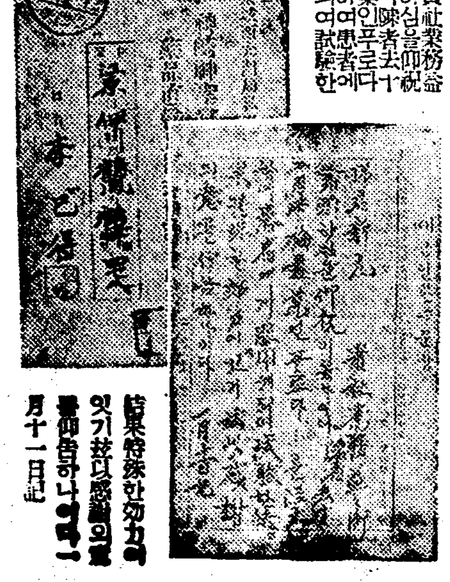
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京城府西大門入口 (제일큰벽돌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우표는 똑바르게

삐뚜로나 꺼꾸로나 례가 아니다

조그만일에도 안악네의범절

어디나 인사를차리자

크게 생각하오면 례절이니 범절이니 그까지스것을 가릴것이 업지오만은 여럿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 반듯이 그런것을 무시하기도 어려운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안악네로 이르오면 아모래도 남자들과는 다른 것이라 남에게 행여나 수가 빠저서는 못쓸것입니다. 그런데 례절이나 범절은 꼭 남의 집을 방문 해서나 또는 자기 집에서 손님을 마저서나 그 행동거지에만 달린것도 아닙니다. 그 보담도 도리어 세쇄한 일에 부주의기 잇기가 쉬웁습니다.

첫재로 취직(就職)이라든지 남의소개를 청하얏슬때는반듯이 그사람에게 그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되엿다면 더말할것도 업거니와 안되엿더라도 안되엿다는말을해야합니다. 청할때는 가진호의와 친분을 다보이어서 소개를 어더노코 그이후로 고만시치미를 뗄때여서야 그어디 인사스성이되엿습니까? 다음날또 청할일이 업스란법도 업는데그때는 또무슨 면목을 가지고청하게됩니까? 어느지방에려행을 가서그지방의어떤사람에게 여러가지로 신세를 지고도 돌아와서 편지한장을 안는 분들이 드물지 안습니다. 그 이외 의사나 산파에게라도 급한때청할뿐이지 그후 이러탄인사 한 마디 업습니다. 그래서야 어디 인정입니까? 돈 주고 고친것이라도 나헛스면 다나헛다고 인사는 한번 해둘것이 아닙니까?

×

편지를 부칠 때 우표는그저 아무러케나 부칩니다. 물로 아모러케 부처도 가기야 갈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표를 꺼꾸로 부치면 절교(絶交)라는 뜻이 되고 또 그것을 비뚜로 부치면 미쁘지 안타는 뜻이 된답니다. 설사 그러한 뜻이 안된다고 하기로서니 거꾸로나 삐뚜로 부처서 하필보기조흘것은 업는 노릇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남의성명을 흘려서 아무러케나 써버리는 이들이 만습니다. 그것은 그사람에게대한 존경심이 엷은것을몰시하게 되는터로 어른이나서투른 친구간에게는 절대로 피할 일이옵시다 또뚤근 잉크나 연필로쓰는분도엿지 안흔데 그역시 절교편지에 한해서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망한중이라도그쪽은 주의해야됩니다.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도 밧는 편이유쾌치 못할것아닙니까? 그러치안슴니까?

또 손님이 차저 왓슬 때도 그 손님대접에만 고만 절만꾸벅하지 손님이 다리고 온 하인은 별로 대수롭게 보지를 안슴니다만 그역시 자기집으로 보아서는 손님이 아닌 것 아닙니다. 또 헌칠하고 인사스성이잇는 안악네의 수완은 겻짜손님을 대접하는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그런 손님을 대접하는데서 들어나는 것이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편 배달부나 물장사나 늘 자기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친하게 대접해 두어야 합니다. 제 직무는 제직무요 이편의 인사는 인사대로 차려야만 합니다.

자기장처와미점

유행에 희생되지말일

금년에는누른비치득세

어떠케해야실수업슬가

어떤것이 류행한다고해서 곳 그류행만을 쪼차가는것은 잘못입니다. 어느 일본화가(日本畵家)의 말과가티 자기몸에 맛지안는 류행은 그대로 넘겨버리어야만 합니다. 위선 금년봄에는누른빗이 류행한다고 합니다만은 얼골스빗이 조치 못한분에게는 아모래도 맛지안하니까 자지라든지 남이라든지 진한빗만갓지못합니다 류행에다가 자기얼골을 희생시키어서는 실상 류행의 본의를 모르는 말입니다.

자기의 개성(個性)을 뚜렷하게 하는옷이라야 옷의 상승입니다 그이상 더조흔 옷은 업슬것입니다. 그런데 개성도 개성이지만철도 보아야 합니다. 봄과가티백화란만한 철엘랑은 되도록번지러나 그야 반듯이 꼭 그러한 한방법만은 아닙니다. 백화란만하게차야 모든사람이 황홀찬란하게 입리는만큼 새뜻하고 정하게 입

언제나 말슴하는것이지오만은 사람이옷으로해서 돗보이는것은 물론조흐되 옷으로해서 사람이 눌려버려서는 조치못합니다. 그 당장엔이 황홀찬란해서 눈놀여러번보내다가도 떠나서는 아모것도남지안케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숫사는법

양은숫을 살때는 여간주의하지안허서는 안됩니다. 양은숫가운데는 순양은제와양은에 아연을석거서만든것 두가지가잇습니다 이두가지를 구별하는데는 빗갈과 윤기를보고 구별하지안흐면 방법이업습니다. 순양은제는 빗갈이 아조희고 광채도힌빗을내고잇습니다. 석거서만든것은빗갈이 희면서도 거므기가 돌며거무칙칙한 광채가나는것입니다 숫의 크기에도 한되니 두되니하는것과 솟주둥이넓이가 한자니 두자니 하는것 두조유가잇습니다 적당한자양은으로만든숫에는 밋바다에 한되니 두되니 하는것이 아조새여저 잇습니다. 다만숫주둥이가 한자니 두자니하는것은 대개가 가짜양 은으로만든물건입니다 진짜양은으로만든소츤 위생상아무해가업슬뿐아니라 잘갓해서 우그러지더라도곳바르필수잇스며 해여지지안습니다 가짜양은소츤 한번우그러지면다시바릇수업시 꺽거지는것입니다

이박게 남비가튼것은 두텁고귀가깨여지지안흐며 남비 배와귀가 한조각양은으로 만든러진것이조슴니다 엽흔양은으로만들뿐아니라 남비귀가 따로붓칠하야 달린것은못씀니다

고나서도얼는 남의 눈에도 띄이고 또 자기의 고상한인격도 버현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四月十三日(火曜)

◇午後六時 兒童劇 두동무 旺新童友會 指揮 金 奎 哲

◇同六時二五分 (東) 中等英語講座(一) 三浦 太郞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 中央試驗所 安 東 赫

◇同八時(東) 피아노獨奏 一、소나타 下長調…모갈트作曲 파울・빠인가르텐

◇同八時二十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高 永 乘 大笒 朴 鍾 基

◇同八時四十五分 玄海를건너는歌謠曲—全國中繼— 一、흐르는품님(金) 二、無情의꿈(金) 三、물새야왜우느냐(高) 四、國境의밤(高) 伴奏 DK오-케스트라 金 福 姬 高 聖 麗

◇同九時 時局이야기 柳 寅 晟

十四日【水曜】

◇午後〇時五分 吹打 一、吹打 二、念佛 三、굿거리 四、방아타령 五、양산도 三昌吹樂團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 學齡어린이와結核 金 光 鉉

◇同五時 럭비試合實況—(邦語) 養正高普對京城商業—龍山球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謠、獨唱 一、오리떼 二、참새학교 三、나무업는山(張) 四、갈메기 五、시골아친 六、별님하나(張) 七、시집사리 八、앙큼스런괭이 劉 明 子 張 仁 淑 피아노伴奏 金 龍 燮

◇同六時二五分 (東)中等英語講座(二) 三浦 太郞

◇同七時三〇分 婦人講座(京城) 中樞院參議 玄 櫶

◇同八時 비오라、다모-레와하-프시코-드 비오라다모-레 에마뉴엘、무라 一、奏鳴曲A長調-밋첼글렛트作曲 하-프시코-드레니에、푸랑크 二、組曲B長調 마-르作曲

◇同八時二五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박이 三、흥打鈴 四、개고리타령 金 素 姬 金 素 玉

◇同八時五五分 古談 桃花娘 車 靑 吾

十五日(木曜)

◇午前一〇時 春季競馬實況—(京城)—經學院으로부터中繼

◇午後〇時五分 (大) 輕音樂 大阪라디오、오-케스트라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朗讀 릏하시다 塔 花女高 李 奠 乙

◇同六時 童話 李 定 鎬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田 榮 澤

◇同七時三〇分 講演 社會生活과法律 尹 元 上

◇同八時 歌曲의밤 一、羽調初數大葉 二、同二數大葉 三、三數同 四、同頭擧 五、騷聳 六、半葉 七、界面三數大葉 八、界面頭擧 九、言弄 十、弄 十一、言樂 十二、羽樂 十三、編樂 十四、編 十五、太平歌 男唱 河 圭 一 女唱 徐 珊 瑚 珠 玄琴 金 雨 塘 洋琴 金 相 淳 大笒 金 永 根 杖鼓 金 一 宇

(平 壤)

◇午後七時三〇分 新人의밤 懇心歌外 朴 東 玉 開城難逢歌外 申 箕 益 唱夫打鈴外 金 寶 基

◇同七時四五分 流行歌 一、가、東京아가씨 나、高原의黃昏 金 暎 敎 二、가、산골處女 나、浦口의서름 羅 斗 玉 三、가、南國의밤 나、上海夜曲 金 元 燦 四、가、恨만흔캐라반 나、나는당신의것 姜 義 明 五、가、마도로스의꿈 나、孤島의情恨 柳 善 元 六、가、얄루江千里 나、港口의선술집 金 榮 河

◇同八時二五分 끼타아二重奏 一、하와이안멜로듸ー 二、알로하、오에 蘇 日 榮 朴 明 煥

◇同八時三五分 流行歌 七、가、感傷의가을 나、孤島의情恨 金 容 姿 八、가、聖處女의노래 나、동백꽃 李 應 春 九、가、울기는왜우나요 나、눈물에지는밤 姜 炯 齊 十、가、얄루江千里 나、사나이의純情 金 景 林 十一、가、춤추는양자 나、거리의드룸 徐 永 模 十二、가、同春譜 나、靑春日記 玄 鳳 天

◇同九時二〇分 색소폰獨奏 一、小夜曲 토셀리曲 二、介베르트曲 金 淳 昆 피아노伴奏 元 名 琴 끼타아 奇 一

"純情海峽" 鑑賞週間

原作……咸 大 勳
監督……申 敬 均
撮影……梁 世 雄
出演……金 一 海 金 映 玉 孫 一 圃 權 美 郷

時日 十一日=六日間
場所 市内優美館
入場料 階上 六十錢、四十錢 階下 四十錢、三十錢
後援 朝光會

血行の調節が健腦の根本です

恒常腦를明快하게하는대는

一、血行을조케하고 腦의充血과 疲勞毒素를 一掃할일
二、充分히 熟眠하야 腦를 쉬게할일
三、便通을 조케하고 自家中毒을防止할일

이맘때가되면 腦充血이 되기쉽고 頭痛、上氣、不眠、憂鬱、히스데리ー가 생기기 쉬운때인대 療法은 이三大要素의 綜合力이 絕對必要하다

健腦丸 (건 뇌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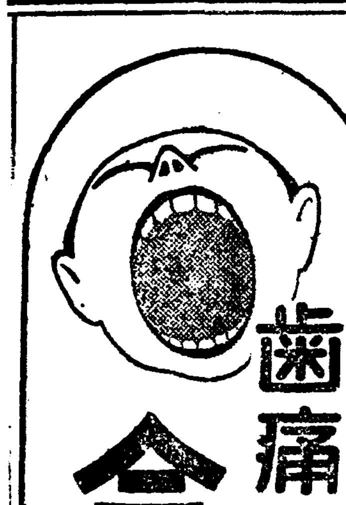
한劑로安眠、便通과 血行을바로잡는『健腦丸』

本劑는 普通藥이나 催眠劑와가티 한가지症候를對症하는것과는달라 第一에 腦의血行을整調하고 活動力을補助하며 第二는 興奮을鎭定安眠을하게하며 疲勞素를 排除하고 第三은消化를도으며 便通을조케하며 病源的으로 腦를明快、健全하게 記憶力을增大한다

左記諸症에꼭推奬한다

▲頭痛、上氣、耳鳴이잇는사람
▲逆上、便秘、頭重이잇는사람
▲不眠、倦怠、神經衰弱者
▲腦가疲勞하고記憶力업는사람

價 五十錢부터 十圓까지 全國藥店에잇다



齒痛にスグ効く 今治水 (금치수)

定價 二十錢・三十錢・五十錢

發賣元 丹平商會 大阪・東京

資生堂化粧品デ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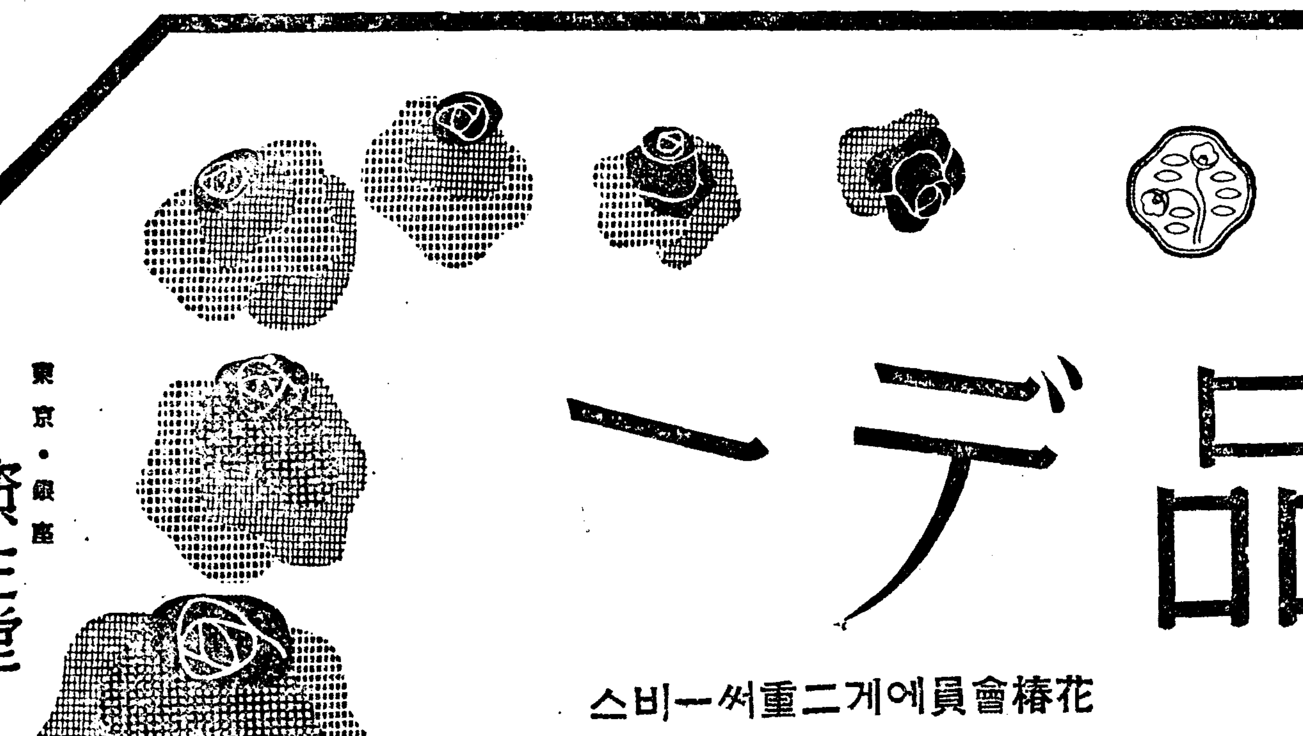
吉例 四月一日부터 同月末까지

資生堂化粧品 御愛用者優待

下記連鎖店에서期間中

資生堂化粧品一圓어치買上하실때마다 抽籤으로・無洩粗景進呈

區域 — 全關西・九州・臺灣・朝鮮・滿洲



花椿會員에게二重써ー비스

花椿會의 會員에게는 景品外에 쿠ー폰券을進呈합니다

花椿會라고 하는것은 資生堂化粧品을 愛用하시는 婦人들을爲하야 流行服飾、近代美容科學등의 조혼相談相手는勿論、이에關한 講演會等에 招待를 하며 其他特輯팜프렛트등을 無料로頒布하야 愛用者의 美와趣味의 高揚에 奉仕하는 興味잇는 모임이랍니다

申込은下記의 資生堂連鎖店으로 하십시요——會費不要

東京・銀座 資生堂

化粧品デー參加店

京城 本町 三越 / 同 山岸天佑堂 / 同 平田百貨店 / 同 夏川支店 / 同 三中井 / 同 塚谷洋品店 / 同 貴生堂 / 同 愛生堂 / 同 齋藤小間物店 / 同 北島藥局 / 同 文化研究所 / 同 黑田信盛堂 / 同 川浪濟生堂 / 新町 白石商店 / 同 宮島屋 / 南大門通二丁目 丁子屋 / 南大門通二丁目 富士屋藥局 / 鐘路通り 和信 / 同 韓靑化粧品店 / 同 德永商店 / 同 東亞婦人商會 / 苑南町 大學堂藥局 / 堅志町 坪倉藥局 / 黃金町三丁目 福本藥局 / 總督府食堂店 協和會 / 西大門通り 西大門藥局 / 大學病院構內 昭五會實店 / 義州通り 中島義生堂 / 鐘路五丁目 山崎仁壽堂 / 旭町一丁目 本田商店 / 南大門通り 更生堂藥局 / 吉野町一丁目 岡田永盛堂 / 練兵町公設市場 金丸洋品店 / 南山町 翠山莊アパート賣店 / 漢江通三角地 杉本藥局 / 同一三 時田天[illegible]堂 / 同一六 宮本洋品店 / 同六一 資生堂藥局 / 龍山元町 大和屋洋品店

山城屋 白石小間物店 福岡藥局 清水小間物店 谷口百貨店 孫洪俱商店 金在鉉百貨店 村田洋品店 井上百貨店 佐々木百貨店 松村洋品店 藤原藥局 野田商店 鐵原藥局 一宮小間物店 富三屋 飯山洋品店 明治屋 三中井 三中井 花月堂 夏川分店 ペニヤ商店 杉田小間物店 室藥會社供給所 日下商店 秋月商店 田代藥店 岩田商店 古市藥店 佐藤商店 藤園商店 古市支店 朝鮮石炭工業供給所 カガシ屋 伊勢屋百貨店 小畑百貨店 浦木百貨店 夏川分店 中村洋品店 毛利商店 和信連鎖店 中丸洋品店 間島賣藥局 上田小間物店 津田商店 稻垣支店 カガシ屋 平田洋品店 紅屋小間物店 永寶藥房 倉橋藥店 木原藥房

(昭和十二年三月現在)

學藝

文化沒落說의批判 ②

鄭賢奎

그러나 이런 重大性을 띈問題에 無關心하게 보와버릴수업섯던것이 올시다 그리고 일즉이 여러가지 形態의『沒落의豫言』에 이미、수만흔 사람들이 여러번재

[愚弄] 에 愚弄을 거듭當하여 왕섯스매 이가튼 理論을 그대로 바드드릴수는 到底히 업는것입니다。이리해서 우리는 이제 이沒落의豫言이 나날이 展開되는 이現實과 어떤關聯을 가지는가。또 이가튼 理論이 어떤 社會的地盤을 土臺로 하여서 생길수잇는가。하는 이런問題를 論難하게된것이올시다。이가튼 우리의企圖를 遂行하기위하야서는 위선 一般的으로 所謂 歷史觀의諸形態가 그社會的存在와 어떤聯關을 가지는가하는 이런좀더抵礎的인 問題에서 出發하는것이 손쉬운길이 아닐까 생각되는것이올시다。

沒落의理論은 어찌하야 생기는것일까요。우리는 이런理論의發生을 일직이우리의 歷史上에서보고잇는것입니다。비록

[形態] 는조금 다르다하더라도 다시말하면 그것이 沒落의理論으로가 아니고 終末論的(Eschatologisch) 史觀이라는 形態를取한다하더라도。

혼히 歷史라면(적어도 그것의 傳統的解釋에 依한다면)지난 날의 記念碑的存在와 拔群의偉業을 눈아페 再現시키기 위한것입니다。即 저날의『幸福스럽던狀態』를 이날의『不幸한環境』에빠진 그들의 눈아페 보이기위한것이올시다。그것은 單純히再現을 위한 再現도 알기를위한 再現도 아니엿고 저날의『幸福스럽던狀態』를 그리여내이므로 이날의『不幸한環境』을 慰勞하고 恨歎하고 咀呪하기위하여서만 再現의價値가 잇섯던것입니다。이가튼 歷史는 언제던지 그抵礎에 잇서서 現實的歷史過程이란 언제나 優美한崇高한『黃金時代』에서 醜惡한 卑劣한 一級의 時代』에로 無限히 墮落하여가는 過程이라는 이가튼理念을包含하고 잇는것이올시다。歷史는『墮落하여가는過程』、『死에의過程』이라 終末論的史觀이 이리하야 생기는것입니다。

이런 史觀、即『에스카톨기-』(Eschatologie)의 歷史觀의 가장典型的인例는 저

[中世] 의史家『히에로니므스』(Hieronymus)의 四王國說일것입니다。이 四王國說에依하면 歷史過程은 처음『黃金時代』에서 始作하야 漸次데카당스의 過程을 밟아『銀의時代』、『銅의時代』를 거처 最後에墮落時代인『鐵의時代』에 이른다고합니다。古代는『黃金時代』現代는『墮落時代』인것이올시다。

이처럼 그들의 人生觀과 그들의 歷史觀이 꼿업는 過去의그립던『黃金時代』에로 헤매이는것이기때문에 그들이 그리는바 歷史도 結局은 나날이 變遷하여마지안는 새로운 事實일랑 掩蔽하고 그립던옛날의 事實을 다시 들추어내어 기리實揭하는 記念碑的歷史(monumentalische Historie)라든가 現實일랑 멀리하야 옛날것이라면無條件하고 珍貴하게여기는 好古癖的歷史 或은 骨董品的歷史(antiquarische Historie)라든가 박게 더될것이 업는것이올시다。그러치안코면 옛날의『앙시안·레짐(ancien regime)으로도라가려는『노스탈기아』(Nostalgia)의 歷史라든가 謳愛와敬慕로 가득찬 옛날을 마지못해

[哀悼] 하는 輓歌的 歷史밧게 더될것이 업는것이올시다。

우리는 우에서 좀지리하리만치 終末論的史觀 或은 그와類似한 몇개의 歷史觀의 內容을 적어보앗습니다。그것은 決코衒學的衒動에서가 아니라 실로이가튼 史觀들이 얼마나 過去에對하야 好意的이엇고 未來에對하야 얼마나 憎惡的이엇던가하는 이런事實을 把握하기위하여서이엇든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過去에對하야는 그리도 好意的일수잇섯고 反對로 未來에 對하여는 그리도 憎惡的일수 잇섯든가요 이떤 地盤을 가진자만이 過去에 好意的일수잇고 未來에 憎惡的일수 잇슬까요。對答은 簡單합니다。만일에 그들에게 對해서 이過去가『제것』이 아니고『남의것』이엇든들 이未來가『남의것』이아니고『제것』이엇던들 그들은 過去에 對하야 그리도 好意的일수는 업섯고 未來에對하야 그리도 憎惡的일수는 업서슬것이 아닙니까 即 그들이 그러케도 過去에 好意的일수잇섯고 그러케도

[未來] 憎惡的일수 잇섯던 까닭은 오전히 그들에게 잇서서는『지나가는것은내것』『닥처오는것은남의것』이섯던 때문이 아닙니까 現在와未來를仇敵視하고 過去(傳統、因襲)를 禮讚할수잇섯던 理由도 實로 그들에게잇서서는 歷史가 나날이 變遷하므로『일(毁失)는것은내것』『엇(獲得)는것은 남의것』이엿기때문이 아닙니까。

『過去를내것』으로하고『未來를남의것』으로하는 그가튼 社會的存在란 結局 그어떤社會層일까요。그것은 明白하지안습니까 現實世界에서 敗北되여가는 그어떤社會層 바야흐로 沒落過程에 잇는 그어떤 社會的存在일것이 아닙니까。일직이 우리의 歷史過程에 잇서서는 저中世가거이꼿나려하던때 封建社會의 子眉이 날로 尖銳化하야지므로그 저날의 極盛時를그리며머선 封建層과 가튼것이 그가튼 社會的存在여던것이올시다。그들의 社會的地盤이 실로 저러하기때문에 그들은 억지로라도 過去와 現在라는 이段階에 머물러잇서야되며 그들은 억지로라도 過去의構成態와 過去의體制를 고대로 保全하여야되며 그리기위하야서는 할수만잇스면 歷史의車輪을 까구로 굴려보아야 되는것이올시다。

닥처오는未來를 두려워하야

[過去] 의 어떤期間에『黃金時代』라는 燦爛한榮譽를 베풀고 사람들을 그리로부르는 記念碑的歷史가 생기는것이 이까닭이며 무서운法則을 가지고 進展하는 歷史的現實에는 눈을감고 옛날것이라면無條件으로 珍重히여 기기에 餘念이업는 好古癖的歷史 骨董品的歷史가復興되는것이 이까닭입니다。우리처럼 이러케 把握하지안코는記念碑的歷史를 生이 實踐的으로 過去의歷史를 살펴내어 求하며 骨董品的歷史를 生이 瑣碎的으로 過去의歷史를 살펴때에 求하려는니-체의解釋도 헛수고일것이며 그노스탈기아의 歷史를 懷古的情이 [illegible] 求하려하며 輓歌的歷史를『哀悼情趣』가 揆動할때에 求하려는 그런觀念的企圖도 한낫 잡고리에 지나지못할것이 올시다

※……『婦人像』—李快大氏作

現代朝鮮詩人叢書

市內府雲町九六番地 風林社에서『現代朝鮮詩人叢書』를내기로되엿는데 第一次刊行은尹崑崗 金光均 李燦 李貞求 李琛 吳章煥氏等의詩集으로決定하고 第一回配本으로 尹崑崗詩集『大地』가 四月十五日頃에 發賣되리라한다

北中行春困記 (4)

天津에서 全武吉

北平을 求景하자는 李兄의要請대로 그와同伴하여 北平行의快速車를탄것이 午後三時頃이엇다。食堂車에서 間食을먹고 나오다가 附屬喫煙室에서 小休하며 한英國紳士와 雜談을 하엿하는中에 벌서머지안케 北平外城의 雄壯한姿態가 黑線을 그은드시 두드러저보인다。

그리더니 未久에城外에잇는無數한 墳墓地帶를지나친다。或은 낡은 或은새롭고 모든墳墓—能千萬數의 無常한人間往事와 興亡盛衰를 말하는듯하여 自然이 默想시키는바가잇다。

城을끼고돌기 約十五分만에드디여『품인』驛에나리자 外客에게주는 첫인상은 警戒의重複을마튼 女子巡警의 아담한姿態들이다。이女子巡警들은 貴엽고 親近味잇는것이다。女子는 언제나 女子!수집어함은 그들의資物이되고 자랑도되며 또武器다。女巡警의 行列—비록正服이 칼을찻스나 亦是男子의正規가 몰려갈때 마다 若干얼골빗을 붉히고 수집어하는양이 자못愉快하여 아무威壓感도 생기지안흐니 一種의商魔娘에 不過하고 國民政府의『써-비스걸』이란感도 잇다。幸여 그곱다란손으로 身體檢索이라도 當해보앗스면……하리만큼 明朗味가돈다。

驛頭에나서자 그雄麗한 正陽門이 依然히 聳立해잇다。

北平이란보다도 舊名이北京이라함이 나에게는 더親近味가잇다。그것은 나의 어린녀시 色다르게자라고잇는時節의 稱名인까닭이다。그때의 北京은 아주中國의 政治的心臟地帶이어서 자주大總領의 進退가잇섯다。그리고 曹錕을 大總領으로하고 吳佩孚가 實權을쥐고 還王蒔의 側面活躍을하든대가 北京의黃金時代로서 그後에 國民革命軍이北上한뒤의形勢는 全然 政治舞臺가 南方으로올마가서 자못衰微하여졋다。

回顧하건대 나의나이 겨우十九歲—울흘니 무섭지안흘만큼 오직 血氣가勝하고 理智는뒤서든 젊은時節의 한해를 이北京에서보냇다。(그後에 또한번왓든일이잇다。) 그때의 나의머리속에는 英雄的自負心에 타고잇섯다 아—往年의 世事와 心情이 그리도變하드냐?

우리는 古典味를 滿喫하고처 驛車一臺를 불러다고나서 以前어親히든 某旅館을차저갓다그러나 아무리차저도 某旅館는보이지 안코 그代身으로 宏大한『뻴딩』이 聳立하여서 나의疑問에 無言한 對答을준다。섭섭한感은 업지안흐나 不得已하여 말머리를돌려 長安春飯店으로 들게되엿다。이飯店에서는 前面으로各國租界의깨끗한 街路가보이며 側面으로는 黃瓦赤壁의 古宮의一聯이 날러보이니 視野가자못 시원하다。夕飯後에모두 朱濂熒、金德惠兩氏의 生覺이나서 輔仁大學으로 電話를걸엇더니 마침春期休暇로 學校에나오지안코 旅行地도 알수업다는 섭섭한對答을 드를뿐。一片紙物에다가 그情을 表해서寄托하는수박게업섯다。

夕飯後의 散策으로는 머지안케잇는 東安市場을갓다。各色各樣의 物貨치고는 업는것이업고 그規模의 크기로 亦是第一라우니 李兄은 가끔입을버려 驚嘆을 마지안는다。特히 눈의띄우는것은 寶石類와 金屬佩物類가만흐니 그런部類가 大市場을 形成하는點으로보아서 女子들의嗜好가 무엇인것쯤은 짐작할수가잇다。『귀거리』와『글찌』!中國의 美女와 이러한佩物과는 分離시킬수가 업지안흘까?

우리들은흥아비들의行色 자못초초하여 겨우 煙草며便으 사가지고나오다。

나오는길로곳 大羽樹에 가서 大商舖들을 求景하고 그隣接地인 中國花柳街를 一週하엿스나 不可觸의 紳士行步로 驗旅하엿다。그만흔賣淫女들의 그만흔비客들의 짓거림과 그만흔소짓을 一刀百斷으로 물리치고 오기는햇스나 아직도 그觸手가 서물거리는듯하여 不快하엿다。浴場에 드러가서 終日의旅塵을 말끔히씨슨뒤에야 비로소개를베치고자다。

學生作品

現代青年學生論 (四)

中央大學 安大明

〃忘却의哲學〃이라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即 現實의 重壓이넘어도 무거움으로 그現實을맛저서 그現實속에 突入하야 이러한現實과 씨름하기에는 넘어도困難함으로써 모—든것을現實의구제아홈을 이저버리려고 努力하는것이며 現實을認識하며現實을追求하는 그것에서부터의逃避를꾀하는 넘어도怜悧한生活態情을 말함이다。

그다음『不安의哲學』이라함은 무엇을 意味함인가? 不安의哲學은 嚴正한意味로의 그것은十九世紀中葉의 덴마-크의哲學者킈케골파하이덱가-를代表로하는人間의不安의 分析의哲學이며 그것은 一切의人間的構理的思想은 主觀的인또는 相對的이라는것이다 不安의哲學은 本體的으로 說明하기爲하야 다른點에서 觀察하면은 不安의哲學의 또 한사람의代表者인 야스파-스에 依하면은 一般的으로 理性及精神의限 [illegible] 에 對한 信賴와信念이 업서지고 [illegible] 生活이 人間存在의 限界이라고 主張하는것이라고한다。

또 다른方面에서 不安의哲學을意味한다면은 不安의哲學은 時間的이라고할 한수잇는것이다 時間이哲學에잇서서 [illegible] 時間에對한 特殊的感受性을 보여주는것이며 歷史에잇서서는 人間의本質은 어느때에 잇서서나 時間的存在의 不安定으로써 規定되는것이다。

[illegible]

이러한時間에對한 感受性이現在存在하는 諸現象이 未來에 잇서서도 同樣으로 存在할수잇는가하는 不安과 內面的으로關係하고잇슴것이다라는것이다。

全般的으로 觀察하면은 不安의哲學은 世界大戰以來의 歐洲의不安思想 또는 어떤意味에잇서서는 世紀末의 絕望思想이라고 볼수잇다。

그러나 여기에 現代青年이가지고잇는 不安의 哲學이라함은 嚴正한意味의 哲學으로써의 그것을 意味하는것이아니고 다만 한가지 가벼운意味로 不安의哲學에서問題되고잇는 時間的不安을 意味하는 그러한不安을가지고잇다는 그것이다。

不安이라는것은 恒常 未來에 對한不安에서 오는것이다 即未來에對한 確固한 計劃을 조금도許하지안는곳에 不安은 생기는것이다。

그럼으로 現代의青年들은 未來에對한 確固한信念이 업는瞬間 드디어 不安의哲學—哲學이라기보다도 不安의 生活感情을 가지게되는것이다。

『未來는 青年의것이다』라는 힘잇는말도 現代의 青年에게도激勵의말이되지못하고 現代의青年들은 다만 未來에對한 憫惜한 失望과 絶望할수업는 그것에對하야 無限한 不安을 가진방이다。

現代青年이 無氣力하며 虛無的 頹廢的氣分에서 彷徨한다는그것은 現代青年이 가지고잇는 虛無的 哲學과 不安의哲學이라는 生活感情을 理解안코는 이러한 現代青年의 生活感情도 理解할수 업는것이다。[illegible]

新刊紹介

▲기쁜소식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一部金五錢

▲朝鮮의敎育研究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黃海町一ノ六九 朝鮮公民敎育會 振替京城二五一九九番 定價一冊四十錢 送料一錢五厘

▲朝鮮織物月報 第三十四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二ノ三三 朝鮮織物月報社 定價一部金三十錢

▲音樂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蓬萊町三ノ一三六 音樂社 振替京城二三二五一番 定價二十錢

今年度 市內各專門學校入學試問題 ㉕

(延禧專門)

商業算術 (九十分間)

1、一個年後ニ支拂ヲ約束ニテ金3.000ノ地所ヲ買入レタルニ三個月經過シタル後年5%ノ割ニテ減割引ヲナシ現金ヲ支拂フコトトナレリ支拂金幾何ナルカ。

2、甲ハ乙ニ對シテ下記負債アリ其支拂平均日ハ今ヨリ幾個月後ナルカ。

今ヨリ4個月後ニ支拂フベキ金 至300
〃 6 〃 〃 〃 至400
〃 12 〃 〃 〃 至500

3、今後永續シテ每年末ニ金 至900ヅツ拂込ムベキ年金アリ即金ニテ一度ニ之ヲ拂込マント欲セバ幾何ヲ支拂フベキカ、但シ利率ハ年6%トス。

4、橫濱ノ商人ハ倫敦ノ商人ニ對シテL500ヲ送ランドス。爲替相場 $2/5\frac{1}{2}$ 手形買入手數料1%ナルトキ支拂金高ヲ問フ。

物理學

1、次ノ二式ノ意味ヲ說明セヨ。

a. $\frac{1}{b}-\frac{1}{a}=\frac{1}{f}$

b. $S=vt-\frac{1}{2}gt^2$

2、波動ニ於テ波長ト振動數ト波ノ進行速度トノ間ニハ如何ナル關係アルカ。

3、次ノ各項ヲ說明セヨ。

a. 熱ノ仕事當量、
b. 共鳴、
c. スペクトル、
d. B線。

4、電動力1.5ヴオルト、內抵抗0.5オームノ電池三個ヲ行ニツナギ、兩端ヲ抵抗2.3.4オームノ三本ノ針金ヲ列ニツナイダモノヲ以テ連結スル時各針金ヲ流レル電流ノ强サ各幾何。

中央佛專

數學科

1、$\frac{a}{x(a-x)}+\frac{x}{a(x-a)}$ ヲ簡單ニセヨ。

2、$\left.\begin{matrix}x^2+y^2+xy=11\\x^2y+xy^2=30\end{matrix}\right\}$ ヲ解ケ。

3、$a^2=b^2+c^2$ ナルトキ $\frac{a+b+c}{c+a-b}=\frac{a+b-c}{b+c-a}$ ナルコトヲ證明セヨ

4、$(x-2y):(2x-3z):(2y+z)=1:2:3$ ヨリ $x:y:z$ ヲ求メヨ。

東洋史科

一、南北朝時代ノ佛敎ニ就イテ

二、次ノ項ニツキ知ル所ヲ記セヨ

1、宦官
2、考證學
3、元曉
4、玄奘
5、淸談
以上

國語科

(注意) 1、答案ハ答案紙ニ縱書スベシ。
2、答案ニハ文字假名遣文法ノ誤ナキ樣特ニ注意スベシ。

一)、左ノ文章ヲ平易ナル口語ニテ解釋セヨ。

すべて詠歌のつくろひは自ら打あはぬ處いで來て見るままにすさまじかるべきわざなれば紙筆とりて打むかふ時まづ我が心を顧みたらんぞよかるべきかりそめのたまづさなは千載の後にも殘りぬべきものをなほざりごとに書ぬりおくべきかは

(二)、左ノ主意ヲ捉ヘ平易ナル口語ニテナルベク原文ヨリ短ク書キ改メヨ

我を知るは最も大切なりたゞ己の無名を知るといふに止らず我の本然の姿を知らざるべからず最も經驗的にいへば我は意識の統一相なり多くの人は人生に一度もこの意味にての我を見ずして終るなり境に執し事に繫がれ輾轉として須臾も全我統一我に住する事あらず我を百千に碎きてその一々に縛せられて曾て之を一つに約することなきなり

(三)、左ノ語句ヲ解釋セヨ。

(イ) 議盜は斜へる鐘の如し。
(ロ) いぶせきすまひ。
(ハ) 旺期を遺す。
(ニ) あいなだのみ。

(四)、左ノ文ノ片假名ニテ書キタル箇所ニ漢字ヲアテヨ

我が邦の作者達を思想(イ)(ヘンペキ)なり、(ロ)(ガンカイ)狹小なり、(ハ)(ギリヤウ)拙惡なりとなさむは、あまりに(ニ)(ゴクレツ)にして(ホ)(ガリヤウ)乏しき判斷となさざるべからず。

名古屋 有名問屋 高級萬年筆 製品 連鎖店募集 三京商會 振替名古屋二一三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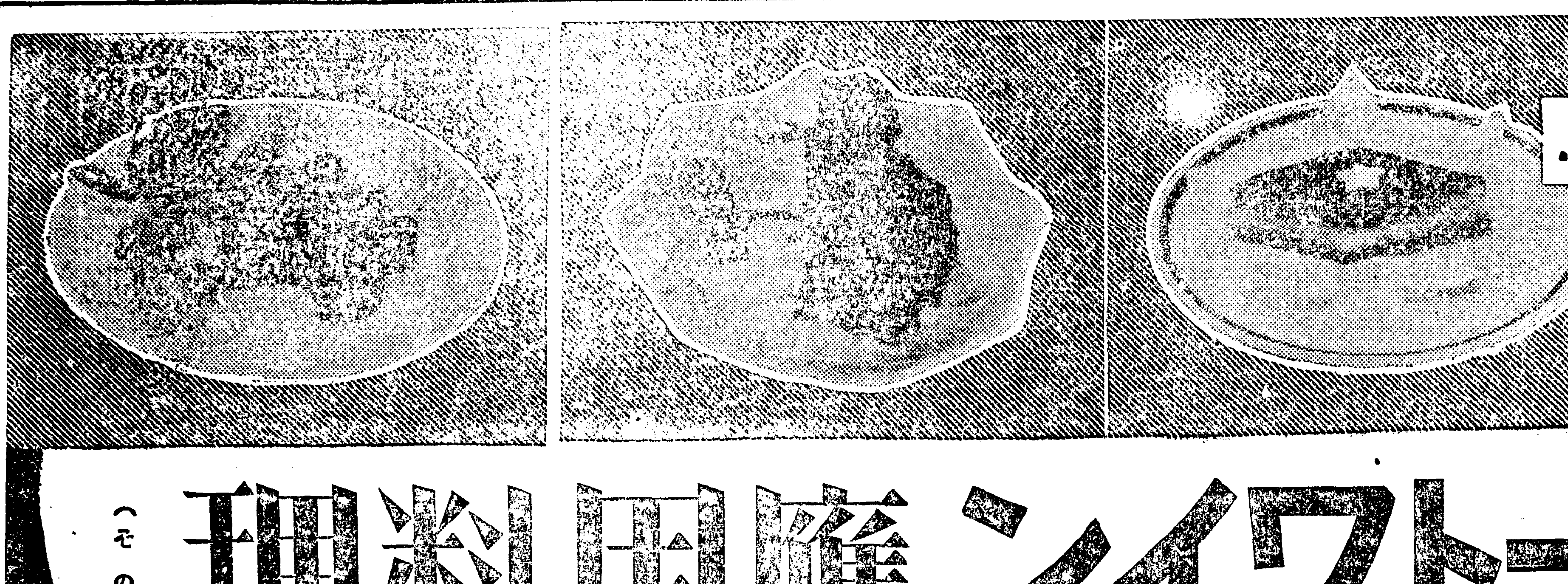
名古屋市中區南大津町 電話中局一〇七七番

紳士洋服製造卸問屋 フラノ三ツ揃 (シルバー總裏付) 一組金六圓ヨリ 各種アリ (外ニ純毛品モ有リ)

商報進呈 (但シ營業者ニ限リ 店名ヲ明記ノ方ハ送附セズ) 名古屋市西區堀詰町三丁目 合名會社 辻定商店 電話西局四六六八番 振替名古屋一五一五九番

新發賣 柴田商店

高壓保健釜 幸福健康の鍵 代理店募集 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中區 日本合金製作所 振替名古屋一〇九七二番



봄의味覺을도둔다!

美味滋養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應用料理 (その二)

포—도와인

大阪 割烹學院校長 辻德光先生(案)

三色제리—(寫眞・右)

材料와分量(六人分) 赤玉포—트와인五勺、白酒五勺、제라친十二枚、白砂糖百匁、食料紅과 靑色조곰

調料法 제라친을 몬저물에 깨끗이 씻은다음 물에당거서 軟하게불니고、물三合과함께 냄비에너허서 잘 저어가며 充分히 녹아 익게하야 砂糖을치서、三合쯤되게조린후、냄비를내리워서、셋으로分하야 여기다가 赤玉포—트와인、白酒、오렌지汁을 한가지식 천천히치서풀니고、赤玉포—트와인分을 몬저 양푼에 부어서、速히식혀굿게하고、다음에白酒分을따뜻하게하야 몬저것우에다 가만히부어서 다시 식힌후에 그우에다가 남저지 오렌지汁分을 갓흔方法으로부어서는 全體를식혀서 굿게합니다 이러케三色제리가된것을 가만히끄집어내여서 赤玉포—트와인分을우로가게해서 菱型으로잘너서 밧칩니다。또제라친代로寒天(우무)아라도無妨합니다 寒天을쓰시게되면 제라친十二枚代로 寒天一本半의比例면됩니다。또에段이든지 겹처노흘때는 몬저식어서굿은羊羹의上部를 불로잘날워서 그部分이 조곰녹은때에 다음의一色을부어너흐면 서로合친자리가 떠러지지안읍니다。

영게葡萄酒찜(寫眞・中央)

材料와分量(六人分) 영계(軟鷄)다리뼈채로四本 土當歸(굵은것)一本・숙갓・세다발・砂糖・醬油・鹽・진국・초・赤玉포—트와인五勺

調理法 영계다리를 뼈부른채로 세개에잘너서 발못은끈어내버리고냄비에너허서 물을소북이부어서는 一三時間徐徐히끌여서 아주軟하게되고국물이조라드럿슬때砂糖、醬油、赤玉포—트와인을 치고 다시이것을달시안흔불에 익혀서는 불에서내려노코한편土當歸의껍질을벗겨서 진채로一分角쯤되게 잘게썰어서 물로씻처서 펄펄끌는물에 초불조금치고여기다가土當歸를너허서 하—야케 데처서는 이것을 진국물에 砂糖과 소곰으로 간을마춰서 잘끄린데다가 暫間의혀서 끄집어내고실처름가늘게썰은 靑昆布나 또는 더운물에 데처낸 미쓰바(三ツ葉)로適當하게묵거서는 한지쯤식 되게잘느고 또한편으로는 숙갓을데처서 물에잘씻은후 土當歸를삼고난국물에살작의혀서 잘게썰고 最後에 以上세가지 영게土當歸숙갓을 주발에담어서 여기다가 닭삼은 물을부어서바칩니다

葡萄떨기羊羹(寫眞・左)

材料와分量(六人分)寒天(우무)一本、水二合、말닌팟고물一合、砂糖五十匁赤玉포—트와인五勺、세로파線二寸角으로끈은것九十枚

調理法 寒天은물에잘씻은다음 물에당거서軟하게불너고 두홉물과함께 냄비에너허서 잘석거가며 녹여익힌다음 砂糖을치고마른팟고물을 너코 赤玉포—트와인을치서 더充分히 익혀가지고 불에서내리워서는 조곰 식어슬때에 이것을세로판線에葡萄알만큼式싸서는 조희를비틀어서 面倒는지모아가지고 실로엮거서 葡萄떨기처럼 잘고루위서는遺化의葡萄葉을꼬지서바칩니다

綜合ホルモン配合の若返り栄養クリーム

クラブ美身クリーム

大懸賞當籤發表

應募總數 三百萬突破！ この熱誠

구라부美身크림、구라부淡白크림、구라부콜드크림愛用者優待大懸賞은壓倒的大人氣가운데서豫定總數三百萬을突破所轄警察署新聞社同業新聞社代表立會下에嚴正公平한抽籤을行하고特等壹等準壹等貳等當籤者芳名을左와如히發表(滿洲愛用者分도包含)하야熱誠잇는愛顧를感謝하며一層愛用하여주시기를懇願하는바이옵니다 (各等敬稱省略)

正解答
(イ)구라부美身크림
(ロ)구라부綜合크림

總應募數…三百〇三萬〇〇十通

特等 (姿見鏡台、携帶蓄音機、特選訪問着、籐椅子セット(何れか一品)) 貳百名

[illegible]

壹等 (フランス人形、電氣時計、防水コート地、婦人服裝地、オペラグラス(何れか一品)) 貳百名

[illegible]

準壹等 (あかねモス 着尺・反宛) …貳千名

[illegible]

貳等 (バニティケース、プラトン萬年筆、電氣コテ、クラブ化粧品詰合函、イニシアル入アルバム 一品宛) 三百名

[illegible]

◉參等 (クラブ洗粉(大特)(別型) / クラブきは白粉) 何れか一品……五千名
◉四等 (クラブ煉歯磨(中) / クラブ美の素石鹸) 何れか一品……壹萬名
◉五等 (半煉クラブ歯磨(新式大袋) / カテイ洗粉(布袋入)) 何れか一品…四萬三千三百名

注意
三等、四等、五等은 賞品은 附送하는것으로 發表를 代身하려하는바이며 賞品은
今日부터 一個月內에 完送、答案取扱販賣店의 地方別
店芳名은 近日中에 直接通知하는同時에 全國同業新聞紙上에도 發表한다
優待景品은 本主權販賣店頭에서 無景品을 進呈하였다。

クラブ化粧品・カテイ化粧品・クラブ齒磨
總本店 中山太陽堂

漁場作業期變更으로 全南漁民大奮起

從來의 四月中旬을 六月中旬으로 變更해서 정작 盛漁期엔 漁獲못한다고

【光州】조선 청건착망수산조합(朝鮮鯖巾着網水産組合)에서는 레년의 방침을 달리하야 금년도부터는 선건착망어업(鮮巾着網漁業)을 오는 륙월중순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실시하기로되엿다。종래에는 매년사월중순으로부터 륙월중순까지 어업하여 주도근해일대의 어장은 성어기엿슴으로 전기기일안에 작업하든것을 돌연 일자를 변경하야 제주도내 성산포(濟州島內城山浦)와 동도서귀포(同島西歸浦)방면등의 성어기에 당한 어장은 금지하게되야 동지에 사는어민칠천여명은 사활문제라 해서맹렬한반대를 이르켜 제주도어업조합(濟州島漁業組合)을통하야규약개정을 교섭하는한편 관계당국에진정운동을 하고잇다는데 그와가티 성어작업기(盛漁作業期)를변경한 리유는 전조선각지의 구어법별을보면 고등어의 성어기는 경남거제도(慶南巨濟島)로부터 이류월중순이 최성어기라는 추칙으로 그와가튼 지방사정을모르고 변경한것이라한다。그로인하야 제주도어민에 한영향은 단순한 제주도어민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라고 일반도민은 주목하고잇다한다。

賃金傳票割引等 中間搾取를嚴戒

勞賃支拂은勞働者本人에게로 江原道當局의方針

【春川】금년도강원도(江原道)내에서실시된 철도건설(鐵道建設)하천개수(河川改修)항만개축(港灣改築)기타 각종공사로인하야 실로공비 천삼백칠십팔만팔천이백칠십오원에달하며 산포된 로은도 오백칠십구만팔천이백칠십삼원으로 사용될로동자수는륙백칠십구만구천팔십칠인이나 될터이니 강원도(江原道)로서는 종전에들은 토목경기를 이루리라함은 기보하엿거니와 그간실시된토목사업에잇서서 로임지불을 전표제로하엿슴을기회로 발호하는 간상배가각공사장에 나타나 소위전표할인을하야 중간착취를하게되여 늘로동시장에 큰파문을 이르키여왓는데금년도에 이회에분하여 지불할지라도 꼭 본인이안이면 지불치안케 절대 전기한교사업을압두고강원도당국에서는 로임지불에대하야 상당한고려를하고잇는바 대체로 가급적매일 임금을지불케하며 월로전표의할인매매를 엄금할방침으로 중간착취의폐단이 업도록하리라고한다

什長講習會

咸南道서開催

【咸興】함남도지방과에서는 오는칠구 이십이틀동안 각군에서 추천한 로동자십장(什長)오십칠명을모다노코 강습회를 열기로되엿다 교육사게의 확황으로 매년오륙만명 이상의만흔로동자를사용케 되겟슴으로 로동자조종문제는큰사회 문제라고하야이가튼신기한 방침을안출한것이다

咸陽의小作調停

昨年中百十餘件

【咸陽】함양소작위원회에서 소화십일년도에 소작조정한 건수는 구십여건인바 조정성립건수는 칠십팔건이엿고 금년에 들어서 신립건수는 벌서 이십구건이나 지난 칠일현재로 접수되엿다한다 그러고 오는 십삼일에 십삼건을 조정한다는바 대개가 재판소까지 넘어가지안코 판사임석으로 유원회에서 해결이된다고한다

時價三千五百圓짜리 普校基地를提供

南旨金正浩氏의盛擧

【南旨】락동강류역에서 년부년수해의 최심지대인 경남남지(南旨)일대의 농민생활은 극도의간난에 쪼들리여서 지방발전에만 흔차지기생기든중 남지공보교의 교사도 장근이십여년의 오랜것으로 이전건축지안흐면 안될형편이던사정임으로 지방민은 누구나 이문제에 관심하야 걱정을 하고잇든터에 남지부호 김정호(金正浩)씨가 토지오백평 시가약삼천오백여원어치를 남지공보교신축기지로 회사햇다는대 일반은 김씨의교육에대한 열성과 거룩한처사에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災地陝川郡의 治爐堤防改築

【陝川】지난번수해때에 가장 처참한 피해를받은 경남합천군야로(陝川郡冶爐)는 야로제방이 문허진까닭에 시장일대와 인가까지 일허버리게되엿섯는데 지난번 그지방유지들이경남도당국에가서 진정한결과 야로제방개축공사비 가튼것은 금년도예산에 오른지도 안흔것을 토사(土師)지사와 기타관계과장이 너무나참혹한 재해를 입은 야로주민의 사정을참작하여 총독부의양해를구한후 곳착공할터이라는데 근일 주민들은 이제방이개축되면 시장도이전할필요가업시 옛터에서 다시살게될것이라하야 크게기대를가지고잇다한다。

조개잡이나간여자 風浪맛나빠저죽어

【漢川】평원군한천면례지리(平原郡漢川面禮智里)록백이십사번지 심중정(沈仲貞)의처 김복여(金福女)(三七)는 지난십일정오에 한선(韓船)을타고 조개잡이를나갓다가 풍랑에 도라가는배에서 닷저 바다속에빠저죽엇는데 아직시체는 건지지못하엿다고한다

工事中에土崩 人夫二名死傷

【金堤】지난구일오후네시경에김제군진봉면(金堤郡進鳳面)다목농장(多木農場)공사장에서 돌연흙이문어저서 일하든 인부두명이 치엇다는바 그중 충북(忠北)에 원적을둔 림성칠(林成七)(二一)은 욕부수당을 가하엿스나 절명 되고그외한명은 만경공전병원에 입원시키엇는데 생명에는 관계업다고한다。

밥대신술지게미

하다하다못해술집門前에殺到 金堤地方窮民慘境

【金堤】전북 김제(金堤)지방에서는 춘궁에울고 잇는 궁민들이 매일조금식 생기는 품팔이삭전으로는 도저히 만흔가족들의 생활을 유지할도리가 업스므로 량식을 구하다못하야 닭이나 도야지의 사료에쓰는 소주지게미를 끌여먹고 그날그날살어가는중인데 이로인해서 매일평균 오륙명이 양조장문아페장을 이루는 형편이라고한다

內湖幼園設立

內湖勉靑서經營

【興南】홍남읍내호(內湖)유지도요한 호수(扈應)씨는상당한인구를포용하고잇는 내호에 아직것 유치원이업슴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내호예수교장로교회내 면려청년회에 일금삼백원을 기탁하야 유치원 설립을 청탁하엿는바도씨의 특지에 감격한동청년회에서는고유지원설치에 착수하엿는바 지난십일에 개원식을

北鮮線과圖佳線 運輸系統을變更

東北滿과北朝鮮의連絡緊密化

【淸津】만철북선선(滿鐵北鮮線)은 도가선(圖佳線)과 련결시기는중 와 북조선삼항을 동북만주요한 『코-스』임에 불구하고종래로 운수계통(運輸系統)의 불비상태 때문에 불편이 적지안튼바 오는십오일부터 렬차운전시간을 다소변경하야 두지방의 제휴를 촉진시키고저 목하그푸란을 작성중이라한다 그중 중요한것은 종래도문북동간(圖們東?間)의 렬차를남양목단강간(南陽牡丹江間)으로 렬차로 변경하는외에 현재의시각이 일부를 변경하야 남양혹은 도문에서 량자가원만하게 접속할수잇게만 될것이라한다

歷史기픈三樂學院 都市簡校로變更?

現維持委員、學父兄들은反對나 鄕當局은實現을慫慂

【江陵】강릉삼락학원(江陵三樂學院)은 무산아동과 학령초과된 아동의 교육기관으로 십년이란 역사를가지고 그간강릉사회에 공헌한바다대하얏슴은 다시말할필요가업다 그간경영난으로 수다한 고통을겪다가 소화십년강릉의 부호로 교육방면에 특히깁흔 이해를 가진최도승(崔燦昇)씨가 경영의책임을 마튼후로는 현재지에 교사를 개축하야면목이 일신되엿슬뿐아니라 내용도충실화하야 갓가운 장래사립보통학교로 승격운동을이르키게 될것이라고 기대되는중 뜻밧게금년도 예산으로 강원도당국이 도시간이학교(都市簡易學校)를 도내세곳에 설치하기로하야 강릉에도 이것이 설치되리라고 하는데현재 한등의 지장이어서 순조롭게 경영되나여가는 이삼락학원을 이도시간이학교로 만들자고 모유력자가 제언하야 군당국도 여기에 찬동하엿으나 지방궁을 구체화하거나와 일방 삼락학원 학부형이라든지 유지위원들사이에도 한등의 의론이업시 모씨가 독단적으로 이와가튼일을감행한데대하야 그출발점엔 동정할 여지가잇다고할수잇스나수속에잇서서 현경영자와 또한 유지위원을 무시하고 경경하게 제언한데대하야 심히유감으로 생각하고잇는듯하다는데 금후본문제의 귀결여하로는지방문제화할 염려가 업지안타하야 크게우려하는곳도 잇다 여론의일치된것은현 유기관은 그냥두고 간이학교는 새로 따로히 만드는것이간이학교 설치근본정신에 부합되는바라하야 군당국의 선처가잇기를 요망하고잇다한다

才操피우든少年 高壓線서燒死

【淸津】지난 사일오후여섯시쯤 함북부령군부거면마전동(富寧郡富居面馬田洞)부근의 고압전주(高壓線)에 색갑하게 타부른시체가 매달려잇는것을 보고 겁을내여 어쩔줄모르는소년두명이잇서 알고보니 종일토록 가치놀든세동무의하나가 가튼참사를 당한것이알려젓다 참사한 소년은 원적을 전남제주도구우면금녕리(全南濟州島舊右面金寧里)에두고 전기마전동에서 어업(漁業)에종사하는 윤성빈(尹成彬)의 아들로 금년에 부거공립보통학교(富居公立普通學校)북화년생인 윤만순(尹萬順)(一三)으로 이날은 마침공일임으로 전기두소년과 작난을하다가 평소부터 나무에 올러가기조화하는 윤소년은 이번은 전주에 올러안저 겁업시 고압선을 붓들고 교묘한 재조자랑을 하는것이때 마침 흘러온 전류(電流)에 붓잡혀나려지지도 못하고 부르는채 이가튼 참변을당한것이라 발견한 시체는 아모도 감히손대일 용기도 업시 전류에막긴대로 공중상(空中狀)을하고마랏다는바 작년에도 청진근처에서 이가튼 위험한작난으로 참사를당한일이잇서 새삼스럽게 위험을늣끼게하엿나

發動機에감겨 鑛夫一名即死

【天安】지난 십일일 오전여섯시경 천안군 승거면 석교리(聖居面石橋里)리용재(李容宰)씨의 광석도광소(鑛石搗鑛所)에서 작업중에 본적충북괴산(槐山)에 리모(李某)(一〇)는 약일개월전부터 전기도광소에서 일을하던바 전기시일에 천안읍내정인결(天安邑內鄭寅傑)씨의 광석을 도광하다가 발동기피대에감겨목이 잘리여무참히즉사하엿다한다

地方人事

▲韓敎淳氏(社會主事)楊平郡轉勤人事次本社楊平支局來訪
▲宋榮甲氏(前平澤普校訓導)安山普校轉勤人事次上同
▲松尾正元氏(法聖浦公普訓導)新任人事次 本社法聖浦支局來訪
▲李二俊氏 (公州公普校訓導)赴任人事次本報公州支局來訪
▲田榮圭氏 同上
▲金盛植氏 同上
▲金道潤君(淸道救世醫院長)과金分順孃의結婚式을今月十五日午後五時大邱南山町禮拜堂에서擧行
▲李景烈氏 (前論山郡上月普校訓導) 溫泉公立普通學校榮轉人事次本報牙山支局來訪
▲姜制錫氏(前山內公普校訓導)安城公普校轉勤人事次本報南原支局來訪
▲房駿昇氏(參禮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本報參禮支局來訪
▲鄭英護氏 同上
▲海江田功氏 同上
▲西岡敦子氏 同上
▲金敬泰氏(前兵營公普訓導)麗州公普校榮轉人事次本報兵營支局來訪
▲曹圭白氏(牙山郡産業技手)新任人事次 本報牙山支局來訪
▲李漢宸氏(前牙山郡産業技手)公州郡産業技手榮轉人事次同上
▲白光鉉氏(長湍院公普校訓導)赴任人事次 本報長湍院支局來訪
▲黃斗南氏(興水公普訓導)新任人事次本報興水分局來訪
▲李龍一氏(同上)
▲韓相奎氏(前定山公普校訓導)靑陽公普校榮轉人事次本報靑陽支局來訪
▲鄭谷善郞氏(靑陽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本報靑陽支局來訪

求禮 全朝鮮弓術大會

▲時日 四月十九、二〇、二一日三日間
▲場所 求禮 鳳德亭
◇主催 求禮 鳳德亭
◇後援 朝鮮日報 每日申報 求禮支局

長篇小說 그의自敍傳【111】

長白山人作 熊超畵

북경(廿三)

마가렛은 가까수로 울음을 진정하고 내가 청하는 찬미를 불렀다。

"I would be true, for there are those who trust me;
I would be pure, for there are those who care;
I would be strong, for there is much to suffer;
I would be brave, for there is much to dare."

(나는 참되랴네、나를 믿는이 잇으니、나는 깨끗하랴네、나를 아끼는이 잇으니、나는 굳세랴네、만흔 고난 잇으니、나는 겁없으랴네、당할 위험 많으니。)

이 노래를 들으면 만흔 힘을 얻엇다。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참되라고 애쓰지아니할수없엇고 나를 염려해주는 이를 생각하면 깨끗하기를 힘쓰지아니할수없엇다。진실로 내앞길에는 받을 고난이 많고 당할 위험이 많으니 나는 굳세게 버티고 견디고 겁없이 힘잇게 나아가지아니할수 없다。

마가렛은 또 사랑하는 둘잿노래를 불렀다──

"Lord for tomorrow and its needs I do not pray;
Keep me from stain of sin just for to-day.
Let me both diligently work and duly pray,
Let me be kind in word and deed, Father, to-day!"

(주여、내일 일을 위하야 빌지아니하옵니다。주여 저를 오늘 하로만 죄에 물들지말게하옵소서 저로하여금 부지런히 일하고 잘 기도하게하옵시며、말에나 행실에나、아버지여、오늘 종일 친절하게하옵소서)

『마가렛、엘렌、모든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부른 찬미대로 살아가』하고 웃엇다。

열이 오를대로 오르면 나는 잠이 드는것이엇다。일종의 혼수상태엿다。나는 내 얼굴에 구어이 닿는 감각으로 잠이 깨엇다。마가렛이 수건으로 내이마엣 땀을 씻기는것이엇다。

열이 내릴 때에는 전신에 불이 이는듯한 작열감이 잇엇다。전신에 땀이 흥건하게 젖는것은 실로 불쾌한 일이엇다。

『엘렌은 어디 갓서요?』하는 내 말에、마가렛은、

『주무시면서도 엘렌을 찾으서요』하고 웃으며、

『엘렌은 우편국에 편지 부치러 갓어요』하엿다。

자면서도 내가 엘렌을 찾앗다? 아마 그러기도 햇을것이다。지금 내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하고 귀여운것이 엘렌이엇다。나는 엘렌이나 마가렛이나 꼭 같은 정도로 사랑하랴고 힘을 썻다。나는 엘렌에게서 더 만흔 가치를 발견하엿다。엘렌은 참 잘 내 속을 알아주고 비판까지하는 능력을 가젓다。엘렌은 한 남자로나 사랑하는것이아니라 스승으로 동지로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믿엇다。그러나 마가렛은 분명히 나를 한 남자로 연애하는것이엇다。아마 자기가 접촉할수잇는 유일한 남자로 사랑하는것인지 모른다。나는 그마음도 고맙지아니함은 아니나 이렇게 중병에 잇는때문이겟지마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엇다。어느 여자와도 육체적 결합을 목적하지아니한、뜻만의 사랑을 하고 싶엇다。만일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상에서 살 기회가 잇다고 하면 나는 금후의 목숨을 성도적 생활로 바치고싶엇다。물욕과 명예욕과 안락욕과 정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모양으로 순전히 동포를 가르치고 건지기위하야서 살고싶엇다。이 한 생각이 잇길래로 지나 일년반 동안 마가렛의 유혹을 잘 이겨 나온것이엇다。실상 마가렛의 유혹과 매력은 저항하기어려우리만큼 컷다。그는 몇번이나 내게 안기고 내게 매어 달렷다。그러할 때마다 나는 이성이 아뜩아뜩함을 깨닫앗다。그러면서도 최후의 일순간에 나는 나를 이길수가 잇엇다。

滿天下讀者諸賢에게謝함

個人이나團體를 勿論하고 그가진바 趣旨와 目的에 對하야

그社會 그民衆의 絶大한支持와援助를 바들때 그個人이나 團體로서 오즉 感謝하다는 言辭로써만 그謝意를表하기는 업겟다고밋는바입니다。우리社會에 벌서부터 우리 柳韓洋行의存在가 認識되고 柳韓이가진바 一定한趣旨와 確乎한 目的과 使命에對하야 우리社會大衆의絶大한理解와熱烈한 支援으로써 今日의 柳韓의形成을 보게되고 또光明한 希望을 갓게하여주심에 對하야 우리社員一同은 玆에 滿天下讀者諸賢에게 무어라고 謝意를 表할바이업나이다。

柳韓洋行의趣旨

諸君!! 우리民衆의 참다운 幸福을 齎來하는運動에는 여러가지가잇슴니다。文盲打破도잇서야할것이고 政治的努力도 잇서야할것이며 經濟的發展도잇서야될것입니다。

그러나 在來로社會의發達史를보면 恒常그社會의保健과衛生向上을先頭로하고 그다음에 그社會의文化와民度가發展하엿든것입니다。

換言하면 한社會는 그民衆의血管속에 우렁차게 도라가는血液 機敏하게作用하는神經 器官의完全한活動 그리고駿足鐵腕 이모든 健康의銳矛을 갓춘後에야 비로서 넘처나오는 潑溂한 生活力을가지고 그民衆의 偉大한抱負와 經綸을 實行할수잇는것입니다。

그럼으로 柳韓洋行은 일즉이保健과 衛生向上이 무엇보다도 우리社會의 急先務임을 自覺하는同時에 이것을 柳韓洋行의目的으로定하고爾來十有餘年間長久한時日과 不斷의努力으로써 使命을 다하려고盡力하여왓슴니다。

以上의目的과 使命을 達成함에잇서서 그에對한柳韓의政策으로우리는 먼저 우리自身에信實하고 우리民衆에게對하야 誠實할것을 盟誓하며 『信用을우리의生命으로삼고』創設以來長久한歲月과 莫大한費用을드리여 우리의 腦汁을 搾出하야銳意努力한것은 保健運動에 最大武器인 卓効的治療劑를 恒常 世界에서 探求한것입니다。

따라서 現在柳韓洋行은 英米佛獨等의 先進諸國을爲始하야 特殊藥品의 世界的生産國인 諸威、瑞西、加奈陀等諸國에亘하야 第一流製藥會社인 아봇트、스큅、에반스、파스-토르、티로會社等三十餘個所와 密接한連絡을取하고 特殊藥品數百餘種을 直輸入하야 日本 朝鮮 臺灣 滿洲國等의 醫療界와 一般大衆에게 迅速히 配給을 하게되얏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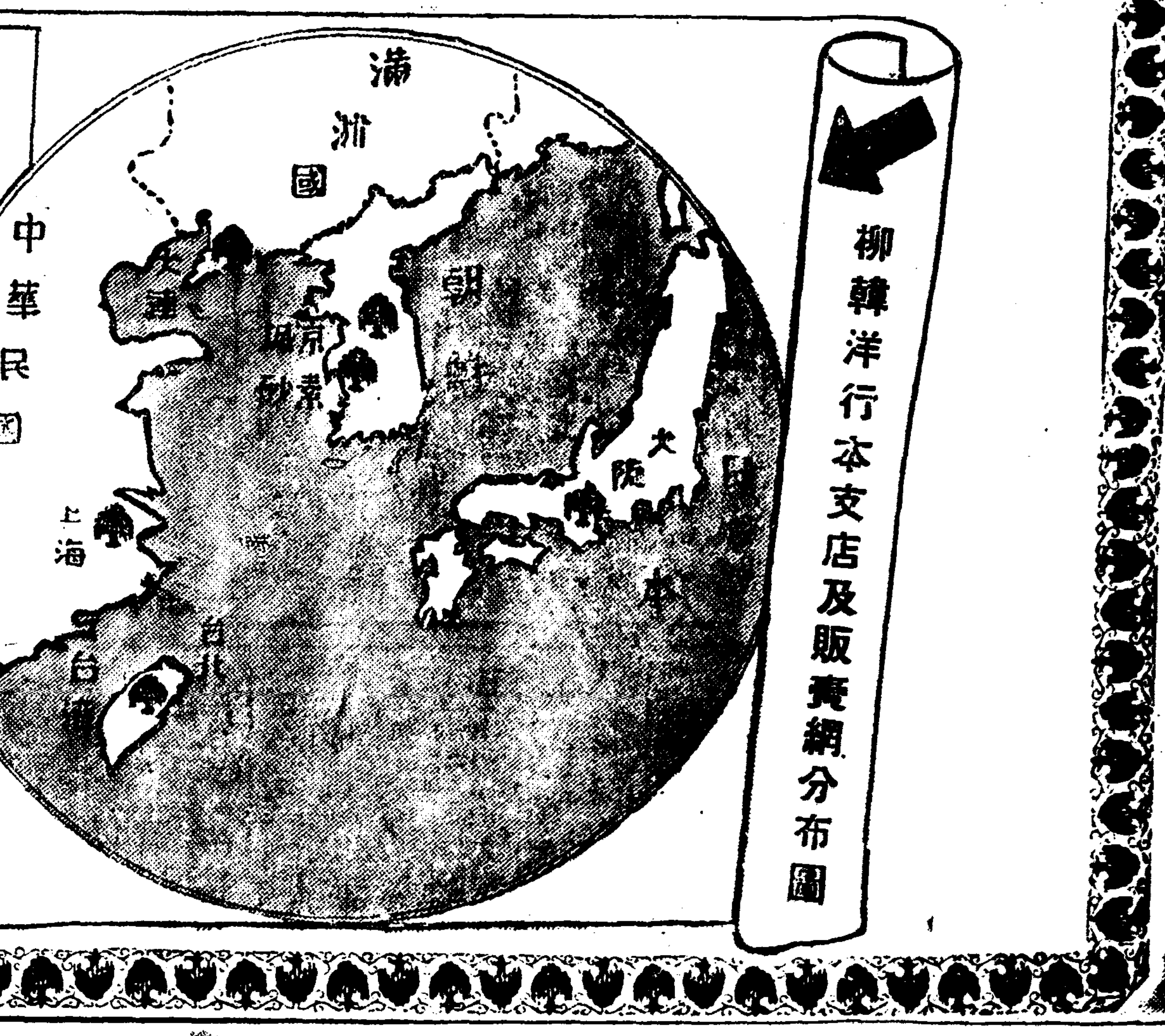
이가티 廣汎한地域에亘하야 重大한使命을自負한 柳韓洋行은 언제든지 醫療界의 時急한需要에 應할수잇도록 全機構를 整備하엿스니 即自由港인 大連港에 大倉庫를 設置하고 連絡不絶로 京城 大連 上海 台灣等 本支店을 通하야 配給에完全迅速을期하는同時에 京仁線素砂에 大工場地帶를擇하야 製藥研究實驗所를 設置하고 專門技術者로하여금 恒常 直輸入藥品의 効能을 檢討케하고 우리使命의萬全을 期하기爲하야 全力을 傾注하고 잇슴니다。

回顧컨대 多幸히 柳韓洋行은 斯界의熱烈한聲援과 鞭撻로써 今日과가튼 機構를築成하고 또우리社員이 其間 訓練과 經驗을 싸어 一層더 우리의 初志貫徹에 熱中케되야 社會大衆의 深甚한理解와 支持가잇슴을 따라서 此際가 가장奮戰할時機임을 自覺하고 今後 더욱 우리의目的을爲하야 邁進하려고합니다。

諸賢!! 오즉 正當한見地에서 深甚한理解를바라는바이며 더욱 絶大支援을 다시바라고 꼿흐로永年의 愛顧를 不惜하신 醫藥界諸先生에게 삼가滿腔의 謝意를表하야 마지안은바입니다。

柳韓洋行 直輸入關係諸會社

米國 아봇트、스큅、제약、 미-슨、데펜더-S·R·헌슨·W·D·쉽앤드도-미 비-드파-커
獨逸 치로、메르크
佛蘭西 파스토-르、
英國 에반스、아렌、헌부레
瑞典 부벡、돌더



株式會社 柳韓洋行
外國藥品 直輸入商
京城・大連・上海・台北
京仁線素砂驛前 柳韓洋行製藥實驗研究所

昭和水組의 復活

蒙利地主二百人의 代表陳情

二萬五千町步目標

昭和九年度米增殖計畫의 中止에 依하야 計畫途中에 中止되엿든 平南의 昭和水利組合問題는 最近의 米價高와 旱災對策의 必要로 大地主間에 다시 組合成立運動을 이르키게되여, 十二日 蒙利地主二百餘人이 會同協議한 結果 十三日에 平壤과 鎭南浦兩地商工會議의 協力을 어더 金仁梧 高漢奎 李寅彰 楊成九 金洞律 廉井于城 高莊仁 太郞 韋山郞次郞 氏等이 總督府에 陳情次로 上京하야 關係方面을 歷訪하엿다 同水組는 平原、安州郡에 三萬五千町步의 蒙利面積을 目標로하엿섯스나 二中間灌漑의 干拓地를 除한 二萬五千町步만을 目標로 大同江上流에서 引水하야 灌漑한다는것인데 工事費는 一千五百萬圓이 約五個年間의 事業이되는것이다 完成되면 反當二石內外의 增收는 疑心업서 現在年年旱災를 當하는 乾畓其他田에서 五十萬石의 增收를 보게되며 蒙利地域內十萬農民의 生活에 莫大한 關係가 잇다는것이다 그런데 今般陳情의 要點은

一、工事費의 一部를 國費補助에 依하여야할것

一、資金融通에 預金部의 低資를 融通하여야할것

等인데 總督府로서는 關係가 元來큰것이라 急速히 決定키는 힘들고 考慮의 餘地가 잇다고 보고잇나 即將來補助하다면 將來增殖事業의 積極的助成이라고 보이지안는等 方途를 取하여야할것 一、따라서 低資融通의 斡旋을 能히할수업서 特히 預金部에 直接交涉하여야할것인데 大藏省方面이 어떤 態度를 取할것이나 一、또 米價高의 時代를 마지한것은 事實이나 計畫으로서는 米價高를 參酌하여 單價를 할수업서 亦是正租는 八圓標準으로 計算하여야할터인데 그러고도 採算이 可能한가 研究의 餘地가 잇슬 模樣이다

物價의 投機昂騰을 抑制할 新立法考慮

【東京】物價의 投機的昂騰은 有力으로 抑制할必要가 잇스므로 暴利取締令 重要產業統制法 其他運用에 依하야 適當한 對策을 講究하는 一方現行法으로 不足한 것은 補充키爲하야 特別議會에 新法案을 提出하야도 조타고 結城藏相은 말하엿다

米移出累計 百萬石減少

米移入은 五萬一千餘石增 粟輸入廿一萬石減

昨年十一月以降 四月上旬까지 米移出累計는 四百二十四萬四千四百七十二石으로 比前年同期百萬四百九十八石의 激減이오 反對로 米移入累計는 八萬九千三百九十七石으로 五萬一千四百十五石增이며 粟輸入累計는 二十七萬三千五百五十一石으로 二十一萬一千五百二十石의 減이엇다 이러한 現象은 凶作關係로 事實上 移出餘力이 적음과 一面消費增에 依한것이라고도 보인다

原料고무價昂騰으로 休業工場續出!

製品檢查中止說까지擡頭

原料고무市況은 世界的在荷減 軍需生產急增으로 沸騰하야 前年의 五十錢唱에서 一時는 九十錢의 高價를 내이고 最近은 八十五錢(仁川沖渡)內外인데 이 原料고무騰貴는 朝鮮內各고무工場으로하야곰 收支不合을 招致케하야 休業工場이 續出하는 狀況이다

이것은 原料의 暴騰에 不拘코 製品價格의 引上은 어려움고 이 引上難은 同業者競爭其他와 相異하야 原料고무의 販賣價格으로는 地方購買力은 넘어서 貧弱한 細農으로는 살수업는 것이 되므로 南朝鮮地方西朝鮮地方工場과 如한 中小工場이 一齊休止하고잇다

今年부터 고무工業에는 同業組合에 依한 檢查實施에 入하야 잇는데 檢查費를 各製品에 賦課함은 그러치아니하여도 高價인데다가 消費者의 負擔을 增하는것이라하야 製品檢查까지 一時朝鮮內向만은 中止하면 어떠냐는 議論이 잇는터로 고무工業의 値上難이 注目된다

商品界는 實需不副

過高로購買力업다

商品界는 其後混沌한 不透明裡에 推移되고 依然諸商品高騰調、上昇인一面、實需는 不副인데 大阪三井物產支店長은 如左히말한다

軍需景氣와 國際的旺盛인物資需要에 依하야 軍需工業、建築關係의 諸商品高는 根本的으로 需給不足임으로 世界在荷는 一掃되고 新規需要는 當用買에限하야잇는實情임으로 目前市勢高의 新規取引은 警戒的情勢이다 이方面으로는 警戒하야 反落等은 考慮되지안흐나 明白히購買力의 限度를넘은 市場임으로 高價樣限의 域에 가까운것이아닐가 朝鮮에서는 比較的商品投機傾向이적음으로 實需에서遊離한 騰貴는 害되적으나 一般商品界로서는 어떤程度購買力을 생각할必要가잇다 當面은 一部特殊商情이잇는 것은 別問題로하고 反落으로어질것지만도 생각할수업다

金融機構未決

有賀殖銀頭取歸任談

最近의 金融界는 硬化치는 안헛스나 資金需要가 增加하얏스므로 緩慢치는안타 이것도 一時的現象으로 政府의 年度末支拂과 新規事業實行에 伴한 政府資金의 放出로 市場은 一張一弛이것다 朝鮮內도 大體金融硬化의 兆가잇다하야 當行도 引締이냐고말하나 別로 引締되지안헛고 資金用途를 鑑別하야 投機的의것은 抑制하것다 이런方針은 銀行으로서 當然하다 殖銀으로서는 未拂込을 徵收하고 社債限度擴張을할이 必要하다 適當한 時期에 行할터이다 增資는 생각지안코잇다 金融分野權은 機構改善問題가 傳하나 多年의 懸案으로 總督府를 비롯하야 關係者의 意見이 만흐나 아즉 決定되지안헛다 朝鮮現實의 實情에 即한 機構改善이 必要하다 各方面意見이 決定되는 委員會라도 開催케될것이다

貸出金利

基準協定?

緩調인最近의 地場金融의實情으로 一般貸出에 對하야 組銀間에 協調되어 統制機運이 濃化된것이 注目된다 即一兩年來의各銀行間의 放資難은 必然的으로 貸出競爭으로 轉하야 金利의跛行的低率 貸出金額의 緩和等이 無統制로 進하얏는데 最近에 入하야 手數料協定等으로 顯著히協調的으로된 各機關에서는 貸出金利의協調 特히 貸出率의 一定基準의協定等을 行할新機運이보인다한다

片爲替主因은

株式의流入!

朝鮮內의 近時顯著한片爲替=朝鮮內資金의 日本內地流出은 朝鮮米移出手形減少 殖銀東拓等의 資金取入困難 貿易入超等에 基因한것인데 就中證券界의朝鮮內浸透에依한有證受爲替의 激增이作用하얏다 即日本內地株式의 朝鮮內流入量은 全혀算定이困難하나 各放資者가 預金三割程度로購入하므로 이爲替資金은 當然朝鮮內金融機關이 調達하고잇고 日本內地流出分은 巨額에 達하얏다 昨年末 旺盛한 大資本流入이잇고 이것이 朝鮮內에잇는 동안에 有價證券購入으로 還元하야 昨今의 實際建設資金需要期에 入하야 朝鮮內의 資金不足이 表面化하고잇는바 片爲替의 調整에는 이有價證券代金의 日本內地流入에 何等의 對策을 必要로하는듯하다

鰮巾着網出願數

벌서千件突破

比前年五割의激增

朝鮮水產業의 大宗인 鰮巾着網漁業은 逐年飛躍하야 昨年의 漁獲高는 二千萬圓을 突破하고 製造加工品을 合하면 六千萬圓에 達하야 前年에比하야 一千五百萬圓의 增加를 示하얏는데 이에 刺戟되어 目下各道에 出願中인鰮巾着網漁業件數는 千件에 達할모양이오 前年에 比하야 實로 五割의 激增이다 總督府水產課에서는 各道로부터의 出願申請書를 보아서 五月中에 正式으로 認可할모양이다 昨年의 許可件數는 六十件으로 今年은 今年은 鰮漁業이 好調인 情勢等으로 許可件數의 增加를보모양이라한다

米穀會社案

再檢討決定

【大阪電話商通】全國米穀取引所와 取引員聯合會에서는 米穀會社法案에對한 政府의態度가 消極的임에鑑하야 來十八日名古屋에서 全國聯合大會를開하고 同會社案을 再檢討하기로 決定하얏다 全國米穀取引所中에는 米穀會社法案의 成立을 熱望하는便도잇스나 若干地方取引所는 同法案으로서 反對意見을 表明하고잇는곳도잇다 또 有力取引所中에는 最近은 情勢가 變化하얏스므로 他力의 更生策에만 依賴치말고 此際自主的取引所經營의 積極化도考慮한것이라는 意向이 有力하야 議論이 續出할모양이라한다

手形交換減少

四月五日부터 四月十日에 至한 京城手形交換高는 二萬九千四百五十三枚 二千六百五十一萬七千六百三十二圓으로 前週中에 比하야 四千四百十七枚、六十一萬五千六百二十二圓의 減少이엇다

最高米價引上?

食糧充實必要로

米商算市勢는 마츰내 大活躍을보여 東阪兩地는 三十五圓臺에 接近하얏고 仁川은 三十三圓臺를 突破하야 後會의低價로부터 百丁內外의 棒上을보엿다. 前月의 爆發에繼한 近來의 飛躍은 春米時代로서는 實로稀有의 形態이어서, 爲當치아니한바가잇다.

이는單히 需給의 基調變革이니 產地의 强硬態度等米自體의 情勢에만 基因되는것이 아니다.

今日의 世界情勢는 劃期的軍擴에 邁進中인데 軍備擴張은 單히 兵器의 充實에 끗치지안코 歐洲의 列國은 食糧充實을 圖하고잇다. 이는歐洲大戰當時 獨逸國內의 食糧의缺乏이란 事實을 回顧하드라도 當然하다 그래서 近時 小麥의 暴騰、大豆의 奔騰은 勿論 歐洲側의 買付旺盛의 結果로서 昨今 外國小麥은 橫濱沖着價 百斤 十五圓市勢를 出現하야 日本內地 小麥보담 百斤當五圓의 高價를 示하고잇다。

無條約時代에 들어간今日 日本도 軍擴時代를마저 十二年度豫算의 大體半額은 軍事費에 充當되고잇는데 廣義國防上으로 論한다면 萬一의境遇에 米穀의 供給은 重大한問題이다。最近 陸軍省新聞班의 週報에 依하드래도『國防上으로본 米穀問題』라고 題目하고 戰時의 食糧充實問題를 詳述하엿다 戰時에는 勞力不足과 資本의轉用으로 生產力의 減少는 免키難할것이므로 常時의 生產增으로서 滿足할수업다고 하엿다

이러한點을 考慮하면 政府所有米는 함부로 減少할것이아니오 오히려 豐富하게用意해두어야할것으로 보인다 그런故로 今年과가튼 國際關係에잇서서는 政府로서도 相當히 慎重한 米穀政策을 講究하여야할것이다。그리고 現在의 物價로보면 結局最高米價를 某程度로 引上하야 所有米의 放出을 可及的回避하는 對策을 取하여야할것이아닐가하는論도 一部에 行하고잇다

鹽販賣高

六百三十萬圓

專賣局 十一年度 鹽販賣高는 合計 六百二十九萬五千六百五十二圓으로 各所別로 示하면 新義州五十七萬一千三百二十二圓、鎭南浦 九十五萬八千九百八十圓、仁川一百九十五萬四千一百二十八圓、群山五十九萬四千二百五十七圓、木浦二十四萬二千三百二十二圓、釜山九十四萬八千七圓、元山六十萬八千一百六十一圓、淸津四十萬八千四百七十五圓이라한다

商工課에……

統制係新設

總督府殖產局에서는 重要產業統制法、重要肥料統制令의 施行에 伴하야 顯著히 事務가 繁雜되는데다가 燃料國策에 順應할 液體燃料調査委員會의 常設等事務處理에 當하는 商工課에서는 本年度부터 統制係를 新設하야 事務官一名 屬二名 技手二名을 增員키로 되엇는데 燃料關係의人員配置를 合하야 本年度 二十名의 增員을 行키로되엇는데 官制改正은 總督府一般官制改正과 同時에 公布될터로 그時期는 七八月頃으로 될豫定이라한다

無盡合倂折衝

十二日에終了

京畿道三無盡合倂에 關한折衝은 十二日午後에 끗마치고 共濟、興業、共立三社는 買收에應키로 되엇는데 그詳細는 十四日林財務局長 歸任을기다려 發表키로되엇다 道當局에서는 二週間中에 茶話會의 形式으로 關係業者를 招致하야 發起人會開催의 準備工作을 進키로되엇다

東一銀行異動

東一銀行에서는 九日附로 支配人代理以下의 異動을 發令하엿다 ▲長項支店支配人代理金正秀命長項支店支配人 ▲西大門支店支配人代理鄭範命西大門支店支配人 ▲天安支店支配人代理李復求命天安支店支配人代理 ▲金化支店支配人代理 本店在勤職員金錫鉉命金化支店支配人代理

經濟界消息

○仁川朝日醸造에서 無水酒精製造=仁川朝日醸造會社에서는 無水酒精製造에 着手키로되어 十萬圓을 投하야 諸設備를 購入하고 年產三萬石을 目標로 製造에 着手하리라고

○關係運用委員會=遞信局에서는 過般來昭和十年度朝鮮簡易生命保險積立金運用申請을 各道府邑面으로부터 徵收하얏는데 相當額에 達하므로 融通을 內定키爲하야 關係委員會를 十四日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키로되엇다고

○工場建築座談會=朝鮮工業協會에서는 十六日午後三時부터 京城商議第二會議室에서 市街地令實施에伴한 工場建築에關한座談會를開할터인데 京畿道京城府로부터 關係官과 工場關係者等約四十名이 出席하리라고

取引停止 (四月九日)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〇八 朝鮮日[illegible] 時藤根

寸鐵

○살移出은 벌서百萬石이나減햇나 살팔어사는 朝鮮人經濟는이불레(와適行)?

○商品界는 고무製品을비롯하야 市勢가 朝鮮人購買力에지나치게 노파저서 去來가零星하다고

○都會地料理店景氣만보고 景氣를 떠들수잇슬가?

○數字에 나타나지안는 窮狀은 果如何

○日本內地農家의 經濟狀態로도 稻作公定價에 反對聲이顚倒

○더구나 第三者의 朝鮮農家이겐 生產費消費가큰問題

今日의市勢【十三日】

株式 買氣不熄 氣强

前場氣强 株式市場은 總體的으로 玉整理途中에잇스나 優良株에 對한 物色買氣는 依然旺盛하야 維持高로 昨後場의 主力株도 頑强하엿는데 米國景氣反動에 對한 警戒도 엷어저서 氣配强하야 鐘紡新舊는 本日東新의 四圓臺回復을爲始하야 鐘新의 二百九十一圓臺突破等으로 氣配가 移行하는 形勢이다 [illegible] 乘薄이오 戰時株에 人氣의 買氣가 移行하는形勢이다

▲大阪株式情報

【大阪電話】政府의 新國策發表도 新株가업서 政情不安으로 氣迷가 濃厚한데 日本曹達은 子會社의 興業株割當 其他傍系株의 優先的對當期待와 年內倍額增資豫想等의 好材料輻湊로 買氣强하야 暴騰하고 船株는 海運界前途 樂觀으로 地場熱心側에 買乘하고 日糖은 砂糖會社의多角經營에 順應하야 變態增資必至라고 보아 買氣不衰하고 日石은 燃料國策에 順應하야 買氣强하며 鐘紡新舊는 本日步逆轉으로 逆日步狙의 買先望에 買氣强하고 平和株는 阪神電鐵의 買進으로 平凡化하야 [illegible]

後場同調

整理途中의 浮動商狀을 脫하고잇는 株式은 物價高의 買方의 投物은 容易히나오지 안흘뿐아니라 株物色買氣의 强在로 材料的으로는 强硬하다 [illegible]

本格回復尙遠

[illegible]

國債 處分物로 少弛

▲東京【東京電話】依然環境의 形勢觀望으로 場面은 無活氣散이나 小口賣方의 處分賣가 多少出現하야 甲號五回三分 二回四分等은 五錢低이엇고 그外에 佛貨、米貨도 全然實買不成이엇다

▲大阪 ▲甲五分利 一〇一、六〇 ▲甲五分利 一〇一、六 ▲第三五分 一〇一、四 ▲四分半 一〇一、九 ▲一回四分利 一〇一、〇〇 ▲二回四分利 一〇一、〇五 ▲第一回四分 一〇〇、一〇 ▲三分半 九七、四〇 ▲佛貨 九七、七 ▲米貨六分半 [illegible] ▲滿洲公債 一〇〇、三〇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今日財界【十三日】

◆米(單位圓)	今日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京城白米一石	[illegible]	[illegible]
一斤當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illegible]
◆商品 大阪三品先限	[illegible]	[illegible]
棉花先限	[illegible]	[illegible]
人絹先限	[illegible]	[illegible]
砂糖先限	[illegible]	[illegible]
◆株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新	[illegible]	[illegible]

後場伸悩

[illegible]

又復新高價로

買氣益熾烈

今朝阪地先限三十四圓六十九錢으로 前日高價보다 六丁上超하야 三十三圓二十錢인 前日高價보다의 十四丁高인 高新的高價를示하엿다 當者高價를示한後 阪地는三十餘丁의反落、當地는約五十丁의反落을示하엿스나 正米의實勢가 產地의絕對賣惜에 依하야 强硬하므로 實方그自身도 追擊賣를行하지못하고 反面의弱氣側은 絕好의買場所로 認하야 絕對買拒하는바 昨日의 又復新高價를 演出함이라 하엿다 다만買方의 踏慕되는바는 最高公定價格이 接近한것인데 아즉도 當島市勢로는 六十丁의買餘地가 잇슬뿐아니라 或公定米價에 肉迫한다 할지라도 高價의保合은 할지언정 急轉落은 期待키난한 韓瓦落은 期待키한 現象인즉 政府의政策如何에 依하야는 最[illegible]

米期 新價後에 伸悩

前場漸進 今朝는 小雨로 阪地三十四圓六十九錢인 九丁反高를提하고 當三二圓五十五錢인 六丁高中도 二圓八十錢인 亦六丁高로先限은 各店의利喰과 大의 猛烈賣進으로 三十三圓二十錢인 十二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三圓七十二錢으로 續高하엿스나 東을中心으로한 利喰賣物이續出하야 供給伸悩이든바 阪地六節六十錢으로 下押함을伴하야 五節〇五錢인千四丁의 突落

市場六感

[株]……市勢는 아직容易한狀態로 버서나지못하야 人氣도彷徨할뿐이나 ▲이러한때에 사두지안코면안된다는 恐惑的買物이 雜株에는 相當히潛在하야 市勢는底堅味를不失 ▲이도戰術로 그럴듯하엿이나 이것이玉整理에 逆行하는탓으로 解셔 整理가 遲遲不進 ▲아무튼 지금形勢로는 反는買方의逃避處가되는同時에 賣廊의階梯에 잇스니 ▲滿鐵의持續買는 考慮되어야할일

[米]……今朝는又復新高價를演出! 公定高價에 接近하는市勢이므로 買方으로서 警戒를하지안을수도업는걸 ▲그러타고 實實成立할수도업스니 結局은高價保合時代? 今場阪地四圓七十二錢과 常磐三圓二十錢을一劃한後에는 供給干庫丁의反落하는買方의 利喰波及? ▲利喰하는一方으로는 또新規買方이 接際하는모양이니 아즉도買方針을 捨制수업는걸 ▲丸三等米는 依然三十錢의昂騰! 期正兩界에 循環高야 달로바로

『마라손』의光景

直接의事情과 間接의諸强材

本年米界의事情은 朝鮮은 凶作後인만치 在米의稀薄은 更言할餘地도 업거니와 丸仁會內는 又一層凶作이어서 需給의悲觀을 呈하야 朝鮮唯一의 高價을 維持하는터이며 間接의環境은 二十八億圓에 達하는 杉大한豫算

期米 新價後에 伸悩

[illegible]

正米 買物再起 反撥

京城漸高 定期强調와 買物이 枯渴로 市勢漸高로서 三十錢高이엇다 丸仁三等三三、三〇 四等三三、〇〇 一等白米三三、五

○仁川昂進 淸算期近强調를 移하야 期米採算側의 買氣가 잇스나 產地態度頑强으로 取引은 依然遲運하고 市況은 閑散未脫이엇다 ㊉觀良三等三三、三〇 四等三三、〇〇 銀坊主三等三三、二〇 四等三三、九〇 四等三三、六〇 一等白米㊉一三三、一

○大邱反發 淸算의 好調를 反映하야 產地는 益賣惜態度가 强하고 買織轉이던 日本內地도 小口당用의 買氣가 잇서서 當用口의買이나마 相從하야 約十五錢反彈이엇다 ㊉三等三三、〇五 四等三二、八五 一等白米一三三、一五

○群山昂騰 期米十三圓入되엇는데 實物은 高價保合으로 定期의 引戾를 移하야 當用口의 商談이 잇술뿐 市場은 活況을 呈하고 市 銀坊主三等三三、七五 四等三三、九〇 一等白米一三三、四五

○木浦奔騰 定期好調와 產地頑强으로 今朝는 販神定期側의 注文이 殺到하야 市中實物이 一擧四十錢奔騰을 告하얏다 銀坊主 三等三三、三〇 四等三三、〇〇 一等白米一三三、〇〇

○釜山硬調 今朝는 東上 定期强調를보고 低値로는 容易치안흔 一方日本內地買用으로 活潑치안흐나 先物側과 當行는 活潑하엿다 銀良三等三三、〇五 四等三三、八五 一等白米一三三、一五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株式

◆朝取期米 [illegible]

◆短期主要株取組 [illegible]

◆算定 代引 日步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取組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海外經濟【十三日】

[illegible]

銀行券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坊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